

아주대 여성 Leadership Center 등교회 후강

2009-1-17 6:20 ~ 7:00 PM

유원 호텔 캐주얼 6층 다이닝룸

Center 등교 400여명

정리이런 것들 여성들, 직장여성들, 일반여성들, 지방여성들

I 들어가는 말:

아주대 여성 Leadership Center가 2003년에 창설되어 6년간 여성 리더를 양성하고
DB주주들 비롯하여 여성정책포럼 창립, 지방자치 여성 후보양성 (2006년 지방선거
18명 출마 5명 당선) 지방자치여성 Leader 양성 (여성단체장, 여성CEO) 등
다양한 Program으로 400여명의 각 부문 여성 Leader들의 Network을
만들어 냈다고 자신감을 보임 축하할 일이 많다.

Center의 성취이신 것들이 많아서 소개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갈구하고 있는 데서부터, 시간이 중요이 되는 지방공동체 창조에서
여성리더 양성역할이 중요이기에 대략이다.

지금까지 여성리더의 중심에서 벗어나 주체적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리
지방이 왜 주목을 받고 있는가?

미려하고는 지역에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하니까
현장실정에 능통한 지역여성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영혼의
지주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의 대고갈반증기에 여성을 둘러보고
생각하며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생활의 문제점에서 시작하는
동반자공동체 중심이래 각 지역에 시민센터와 지역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정부들도 지방자치여성들이 버리고 있는 행정직무 높이는 정책을 갖추는
높은 여성들을 통해서 사회적 내기 위해 여성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래 여성고용정책입법으로 대응시키며 모든정책의 성인지성 평가가
일상화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비교적 빠른 변화이다.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기를 바란다.

오늘 다시 주어진 주제는

<여성 Network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 ① 여성 Leader로서 바라보는 삶
- ② 여성 연대의 중요성
- ③ 여성 재단에 대한 간단한 소개 등이다.

정리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아주대 Leadership Center가
나에 이기 해를 줄 필요는 없었다 것이다.

50여년의 여성정책을 위한 여성운동, 지역공동체생태환경을 위한 환경운동,
민주사회건설을 위한 시민운동, 젊은이들을 위한 문화운동 등
정리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다양한 활동을 해왔는데서 그중 한 부분은 우리들로서
필요한 것이다.

합리적으로 들어 있어서 정서적 대립행위로 하면 불리할수록 있는
대응이 필요 같다.

II 3월의 마무리

1) 2007년 3월의 화두는 희망이다.

희망은 내일을 있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

양귀화 해오의 희망
임지리길 생김거리의 희망
내림산으로의 들거리의 희망
교동물레길 여행길거리의 희망
북한이 행을 포기할거리의 희망
노후를 보낼거리의 희망

이러한 일반적인 희망사항에 대한 우리나라 언론계의 권위자였던 여성들에게는
현실적인 희망이 있다.

2006년 3월 여성계의 권위자였던 <비밀의 여성>에서 살펴본
비밀여성들이 겪어야 하는 주택문제, 자녀교육문제, 의료문제 등은 남성들에게 비해
상당히 심각하다.

특히 저소득층 여성들의 경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이다.

경제적 상황을 불문하고 그대로 두면 여성의 개인적 삶의 질은 물론 여성의 경쟁
능력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데서부터 국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국정에 대해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3월의 여성계 행을 비롯한 모든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2007년 3월은 우리나라의 최고 정책결정기관을 선택하는 대선행 선거의 달.
중요한 달이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지점을 뽑아야 한다.

정치계, 언론계, 경제계, 교육계, 문화계, 의료계, 민생정책에
상충되는 상황이 거듭되며 앞으로 여성들이 현실적인 삶을 보게 되어야 한다.

2) 21세기는 여성의 시대이다.

21세기 세계의 여성발전을 위하여 세계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현재 세계가 총체적인 위기국면에서 문화해방의 대안으로서 여성들이 권위에
나서게 하고 있고 21세기 여성들이 권위를 잡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한국의 경우 21세기 치러진 주부들이 나서게 되어 있다.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21세기 치러진 36평등의 주부들이 21세기 위기극복의
임무로 여성을 당대론, 선거대책위원으로 대변인으로 나서게
선거를 치를 것을 기억한다. 그것은 여성이 지녀야 하는 특성이 다르고
다른 지점까지 사회에 많은 차이를 만들어 기대를 갖기 때문이다.
당분간 여성들이 권위를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여성총회로
입법하고 21세기 치러진 대선행 후보로 여성들이 나서게 된 것이다.

3월 여성계인가?

20세기 White Color 또는 Blue Color 시대였지만

21세기는 황금색과 황색을 발하는 빛을 부각시키는 Gold Color 시대
부각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Pink Color 시대이다.

110대 미국의 위대한 개교라든 지반 1월 4일 미국 여성들 첫 여성 회계장으로서
선출된 66세의 낸시 펠로시의 선택은 시대 개벽을 선언하는 20분
연설에서 2월 2006년 이상 기미로 이 여성적인 순간은 우리 딸들과
손녀들을 위해 대외외향(우리외향이다)을 거부하고 딸들과
손녀들에게 이 세상 여성이 한계인 세상을 열었다고 했다.

2) 그리고 그는 인생에 자신의 소원과 비전을 그려놓고 '우리 자신을, 우리의 미래를 위해' '미래의 비전을 두들길' 것이다.
 '한번은, 강박관념에 걸려있는 남성 권력자에게는 기대하기 어려운 그림이다.
 신서정후 박(이원준) 박 > 개성을 부채로 당으로 부인할 뿐 공화당 의원으로
 합쳐진다고 해서 430=1로 기록시켜서 권력자들은 신서정후 박을 신서정후 박으로
 데리고 갔다. 여당이기에 해방수익자라고 해서 그렇다.
 권력자에게 여당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다.

권력자에게는 권력의 비전만 바쳐도 대통령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후보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등

권력자에게는 인드라 푸이갈 팜의와 책 여성 CEO 등을 맹목적으로
 있는 것들을 두고 있는 것이다.

주목되는 대목은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강력한 Image의 상대적
 남성 후보에 비해 여성 후보의 부채로 여리미를 갖는 대목은 프랑스
 국내에서도 있는 것이다. 권력에는 내세워진 선택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여성으로 못지 않다. 여성총리, 여성대통령 후보 등 비록 2006으로
 우리나라의 여성화하는 것으로 75개국 중 53위임에도 여성대통령, 장관, 장관
 주석, 국회의장, 지방의원 등 여성 지각층이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 주파수를 이끄러갈 야심찬 여성들이 다수
 배출되고 새로운 세대에 도전장을 던지는 여성들이 늘어나야 한다.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이 실적으로 당당하게 권력자의 몫을 차지하는
 남을 앞장서는 세대를 만들어야 한다.

3) 인생을 이끄는 리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0년간 2013년 10월이 넘어서며 앞으로는 더 빠른 추세를
 수명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2005년 75.1세 여 81.9)

미국이 이끄는 사회에는 건강이론의 발달로 180세 수명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생물학자인 해럴드 이데 박사는 2025년 되면 <장수의 인생을 이끄는 리더>
 2025년 100세 인생을 전, 후 반으로 나누어 전 반부는 지체장애 등 먹고
 사는 문제의 위험을 감수한 후 반부는 지체의 보람을 찾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전 반부는 50세 이후의 30~50년간의 후반기 삶을 위해 전 반부의
 삶에서 적어도 10년간은 후반기에 공부하고 노년부로 배우고 함께 뛰어갈
 친구 관계를 확립해 두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것을 후반기는 <행복
 Network> 라고 하고 있다.

세계적 평행한 생활인 리더 드러나. 후반기 삶을 위해 시민사회 등
 장기적으로 후반기가 행복한 노년을 지향하는 길이라고 하고 있다.

여러 신문기사를 보아 아름다운 '인생 2막'을 위해 10가지 영역을
 소개하면:

- ① 재산을 미리 확보
- ② 다시 공부를 시작
- ③ 노년부를 배우

- ④ 행복에는 위로를 주옵소서
- ⑤ 자복에 이르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 ⑥ 부끄러움의 원인을 밝히 주옵소서
- ⑦ 고독과 친하게 지내게 하옵소서
- ⑧ 생애의 마지막까지 자복할 줄을 가르쳐 주옵소서
- ⑨ 병환의 고통을 덜어 주옵소서
- ⑩ 행복의 원리를 알게 하옵소서

이들 모두는 50년대 3차전에 준비해와 가는것인데 무엇으로 승리하는것은
정확히 나타낼수 없는것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만 확신을 갖는다.

수행이 매우 느리다고 하는 것이 후복이 이만껏 같다.
우리를 사육하는 데에 임금이요 나는 고령으로 인하여 비록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여러 문제의 심각성은 세계 최후(108)를 기록하고 있는
최종은 문제에 맞서고 있다.

문제의 삼각형은

- ① 2020년 1월 1일 기준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가장 빠른 115세 이상 노인
 - ② 2050년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가장 빠른 노인
 - ③ 2030년 노인인구 비중의 35%
- 신체보강비 부담: 05년 8:1, 20년 4:1, 50년 1:1
- ④ 2006년 출생아수 1908만 7천 2백 명
 - ⑤ 2020년 7월 인구조사 결과 45만 2천 명

36부에서부터 시작한다. 28행 전 대행이 끝임으로 9행

예비근로자 보호위원회, 공공근로보호기금 등

[illegible]

기아에대항 각종 친척의 기아은행을 → New 리브라이프은행

III 0456 Reader 3H 012423 한 줄의 모습:

Leader란 이끄는 사람에겐 뜻으로 우리모두는 이끌림을 받기위해 이끄는 사람으로 한다
우리모두는 행복을 같이 할수 있도록 지조로 지킨다.

정광안으로서 지이판리를 해해 해남 CEO다!
한 것만으로도 정광안이 필요하.

앞으로 한계령의 경영을 책임진 전임주주를 비롯하여, 직감인, 경영인
공직자 대표 NPO와 합동기획서 작기 Center임을 확인해야 한다.
여러분은 지역사회 발전을 주도할 애성인들이다.

제1차 21세기 Global Reader를 주목하고 있는 <영어 Reader>란
영어 Reader의 사용으로 개념이 다해 영어가 되고 있는 것을
대체할 수 있다. 영어가 못하든 좋은 영어로 못하든 영어가 못하든 영어로
읽는다. 함께 하자고 한다.

이웃과 더불어 일하며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여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비록의 경우 세상에 대한 리더를 수동화해서
세계가 되어 보아도 이국적으로도 활동하고 있을 때 보아도 있을 기회를 갖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 사회적 리더를 이끄러내는 것이 여성 Leader가 가져야 할
강점으로 인정 받는다.

특히 이런 여성들이 지성 사회, 즉 지식 Global 사회의 생동권을 쥐고 있는
Leader들이라 한다.

여성 Leader는 힘, 평등, 나눔으로 성공하며
가장 아름다운 사회

평등이 아닌 사회

이름이 아닌 도구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Reader는 Management와 Leadership을 접목해야 한다고 한다.

Management란 기법이 중심이 되고 경영능력의 중심을 두는 지로써
관리를 하고, 중심을 경영관리를 하기 위해 사람에게 맞는 관리를 하게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Management 관행이다)
Leadership이란

- ① 문제해결능력, ② 지능능력 (지식능력, 평등능력, 지기능력 등)
③ 상황을 내면화하는 능력 ④ 국제적 안목 ⑤ 생명력 있고

나도 이러한 Leadership 특성을 50여 년은 시바니를 해오며 계기를
만들어서 SWA 지로들에게서 배우고 활용하려고 노력해 오고 있다
50년대에 대학에 입학하면서 SWA에 대해 접한 것, 고학능, 이태영,
박혜선 등 여성 리더들이 영향력이 커져서 나를 지향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내 멘토들이었다.

나도 이들의 사회적 생활영역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이태영 박사의 청중적 기행경영, 박혜선 박사의 리더의 힘으로 모든
일처리, 정정호 박사의 리더의 나눔의 생활, 고학능 박사의 사회적 변혁을 위한
영향, 김철환 박사의 여성 교육 등 사회적 리더들이 각각의 리더십을 통해
대중에게로 노력하게 되었다.

2002년 초에 SWA를 통해 접한 것이 불어났던 사회적 모욕으로 인해
관계 비관으로 평등 관행으로 바뀌어 불어났던 Volunteer일에서 나의 의무
유치에 제정해 모든 것을 참가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한 번의 행이 여러
행으로 이루어져서 계속되고 있다.

2002년 5월 일본 방한을 한 행방에서

<70세를 넘어서 꽃피는 인생이야>라는 책대본을 읽어 본 후 접어들어

<오늘 사회의 리더십> 이라는 70세 이상의 나이에 새로운 삶의
다짐을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이 책은 80세에 넘어서는 현역으로 국제무대에 나와 활약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본의 여러 리더를 알게 된 우리 사회 한 번의 리더십을 어떻게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여성 리더이다.

당선 득표: 102명 추후 100명당선

정당비 재선거제로 비례식 46명중 50% 23명

선출직 22명중 30% 등 = 7명

정리: 각정당의 여성후보공천에 대한 네트워크 추후가장많은지 공천2건 1건으로

제11대 국회의 제16대 272명중 16명 → 5.9%

제11대 39명 (선출10명, 비례29명) 10192-7625으로

22명비례의Network 추후(선출3명, 비례19명) 13.4%

이들이공증각각으로 생략한것:

비례 19명 30%
비례 14.5%

호주제 정파적
함께비방과비 > 정파성을한 정파

가래에 아래가 못본것:

공정정파 부패정파 청정정파로 세력화시장을 여는일
정계에 세력화

이런다음정파, 대권위험정파를 끌이고

민북, 민생을위한 생생정파로 전환하려함

여성의 힘이 모든 개성 비후

소수정파의 참여율이 15% 이상이면 제정도로 넘지않

다나만 동화다나만 회충되다.

2008년정파에서 더 많은 여성후보를 추천으로 보내야 한다.

2) 여성관계들이 모든

① 한국여성관계 패아리

② 한국여성관계 연합 (민중기반 그룹)

③ 여성관계연대 (여성관계연대)

④ 여성관계인 다양한 단체를 조직함연대
민중기반

⑤ 지방자치 여성관계 Network, 이리저리 무어치 등

다 어떤것을 통해여성의 힘을가져다 내고있는 Network들이지.

3) 한국여성 재건

1999년 12월 6일에 한국 재건 12월 6일 정파 7주년을 맞이했다.

우리나라의 최후의 여성을 위한 재건이여

최후의 11만정파재건으로 정파화 (이리저리 재건, 한국정파재건으로 아가리)

'정파에게 희망을!' 기치를 여성관계재건을 목적으로 함

128개 여성관계 50여명의 개인여성재건의 Network로 추진

가게 1년에 재건 58명중 36명 추진위에서 구성

대통령 임명후 100여명 추진위에서 추진

기금총합 1,000억 원

고려사태인종에게 세상을 물리게 하라.

지난 7월 20일이 80억 원 기준, 45억 원 지원금 모금 첫 번째

2007년 2월 지원금 총합 300억 원 예상

예산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 저조

기부물치에 대한 불신 (후발주자에게 뒤처지고 있다) → 원금의 예산 회계상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는 불우이웃돕기 기 운동

정확한, 의욕이 있음에 물리고 있다.

공익활동에는 인식

향후 활동 방향은 예산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 저조한 Network를

통해서 구걸이 아닌 인적·물적·예산의 원리로 세금을 찾는 노력을 할 것이다.

모금방식은 수석이 1%, 매출이 1%, 주식 1%,

특정방식의 기준, 특정방식의 기준, 100억 이상 금액이

지정기탁 등으로

예산은 정기인정금, 특정기탁금, 수석지정금 등

또한 불기탁금 리제 Network를 통해 이득을 내는 것

V 맺는말:

수석지정금과 관련 정기인정의 예산들의 처리를 통해 예산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 저조한 Network를 구축해 내고 자는 이주대 예산 Leadership Center의 발전을 기대하고

이제 구축된 예산 Leader Network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 저조한 Network를 구축해 내고 자는 이주대 예산 Leadership Center의 발전을 기대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이주대 예산 Leadership Center의 발전을 기대하고

정리(정리)의식, 정리의식, 정리의식, 정리의식

【 들어가는 말:】

II 오늘의 화두들:

723

24

(1) 2007년 백두의 화두는 희망이다.

희망은 내일을 있게 하는 힘이라는 데서 사람들이 갈망한다.

- 양극화 해소의 희망
- 일자리가 생길 거라는 희망
- 내 집 마련이 될 거라는 희망
- 교육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희망
- 북한이 핵을 포기할 거라는 희망
- 노후가 보장될 거라는 희망

삶의 조건을 만드는 환경이 경쟁에 대한
공감대 및 사회적응에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해왔기
때문

서평들

이러한 일반적 희망사항들은 우리나라 빈곤층의 절대다수인 여성들에게는 보다 절박한
사안들이다.

2006년도 여성계의 화두였던 <빈곤의 여성화>에서 살펴본 빈곤여성들이 겪어야 하는
주택문제, 자녀교육문제, 의료문제들은 남성들에 비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

호주제 폐지 이후 여성문제의 우선과제는 경제적 평등이다.

경제적 성별불균형을 그대로 둔 채 여성의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여성의 경쟁력이 국가
의 미래를 좌우하는 새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는 데서 근래에 와서 경제적 성평
등 인식이 생기게 된 것은 다행이다. 최근에는 여성들이 경제적인 면에서 각, 저임금층 등
정부의 예산집행을 비롯한 모든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증거이다.

희망

2007년도에는 우리나라의 최고 정책결정자를 선택하는 대통령선거가 있다.

좋은 기회이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여성문제

정치계절마다 경험하고 있는 권력싸움에 파묻혀 생활정치, 민생정치가 실종되는 상황이
거듭되지 않도록 여성들이 확실한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나서서 같이 해야 할 것이

고국

(2) 21세기는 여성의 세기이다. 전 세계에 여성들이 모이고 있고

오늘의 세계가 여성발전을 국가의 발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전 세
계가 총체적인 위기국면에서 문제해결의 대안으로서 여성들이 전면에서 나서게 하고 있으
며 또한 여성들이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고들 한다.

한 가정에서도 위기에 처하면 주부들이 나서게 되어있다.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위기에 처한 정당들이 저마다 위기극복의 인원으로 여성을 당
대표, 선거대책위원장 혹은 대변인으로 내세워 선거를 치를 것을 기억한다. 그것은 여성
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 다르고 또한 지금까지 써보지 않은 잠재력에 기대를 걸기 때문일
것이다. 덕분에 여성들이 정치력을 검증받는 기회가 되어서 여성총리도 임명되고 차기선
거에서 대통령 후보로 여성들이 나서게 된 것이다. 거명되고

21

왜 여성들인가?

20세기 White Collar 또는 Blue Collar의 시대였다면

가

21세기는 상상력과 창의성 발휘가 높은 부가가치가 되는 Gold Collar 그리고 부드럽고

방조
주요 인물들이

섬세한 감성이 요구되는 Pink Collar ^{시기}시대이다.

110대 미국의회가 개원하던 지난 1월 4일 미국 역사상 첫 여성하원의장으로 선출된 66세의 낸시 펠로시는 새로운 시대 개막을 선언하는 20분간의 연설에서 '200년 이상 기다린 이 역사적인 순간은 우리 딸들과 손녀들을 위해 대리석 천장(유리천장이 아닌)을 깨부수고 딸들과 손녀들에게 이제는 하늘이 한계인 세상을 열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단상에 자신의 손자들과 의원들의 자녀들을 불러올려서 '우리 자식들, 미국의 어린이들을 위해'라며 의사봉을 두드렸다는 것이다.

형의 논리, ^가간자의 논리에 젖어있는 남성 정치인들에게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그림이다. 선서 직후 그는 <의원윤리법>개정안을 부패정당으로 낙인찍힌 공화당 의원들도 합세하게 해서 430:1로 가결시켜 ^{로비스트들의 선물이나 식사제공도 금지하는데 성공했다.}

여성이기에 해낼 수 있었던 쾌거였다. ^{여성위원장 진출이 대의회로 비결 중의 영향은 결국 제로코로와코 (일본군 위안소 문제안)}
전세계에 여풍이 몰아치고 있다고 한다. ^천

정치계에는 칠레의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프랑스의 세골렌 루아얄 사회당 대통령 후보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등 ^{이들 모두}

경제계에는 인드라 누이가 렉시의 첫 여성 CEO로 맹활약하고 있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리우현, 36대 경}

주목되는 대목은 프랑스의 루아얄 대통령후보는 ^{강력한 Image}의 상대 당 남성후보에 맞서 여성 특유의 부드러움과 여러 자녀를 가진 따뜻한 모성성을 내세우고 있는 점이다. 과거에는 내세워서 손해 보는 덕목이었다.

우리나라의 여성도 못지않다. 여성총리, 여성대통령 후보 등 비록 2006년도 우리나라의 여성권한척도가 75개국 중 53위임에도 여성대법관, 장관, 장관급직,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여성 지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야심찬 여성들이 다수 배출되고 새로운 부문에 도전장을 던지는 여성들이 늘어나야 한다.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이 실력으로堂堂하게 절반의 몫을 차지하는 날을 앞당기는데 여리분은 기여해야 한다.

^전 (3) 인생을 이모작하라.

통계청에서는 지난 40년간 수명이 20년 늘어났으며 앞으로는 더 빠른 추세로 수명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2005 남 75.1세 여 81.9세) ^의

미국의 어떤 조사에 따르면 첨단기술 발달로 180세 수명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

생물학자인 최재천 ^전 이대석좌교수는 2005년 펴낸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는 책에서 100세 인생을 전, 후반으로 나누어서 전반부는 자녀양육 등 먹고사는 문제의 의무의 삶을 산다면 후반부의 삶은 자기의 보람을 찾는 생으로 살라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권유하는 것은 50세 이후의 30~50년간의 후기 삶을 위해 전반부의 삶에서 적어도 10년간은 투자해서 공부하고 노는 법도 배우고 함께 늙어갈 친구관계를 확실히 다져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것을 최교수는 <행복 Network>라고 하고 있다.

세계적 경영학 석학인 피터 드러커교수는 젊었을 때부터 시민사회운동에 참가하는 것이 행복한 노년을 마련하는 길이라고 하기도 한다.

어떤 신문기사에서 30 아름다운 '인생 2막'을 여는 10가지 열쇠를 소개하면:

- ① 유서를 미리 써보라
- ② 다시 공부를 시작하라
- ③ 노는 법을 배워라
- ④ 행복네트워크를 구축하라
- ⑤ 가족과 1:1 만남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만들라
- ⑥ 누군가의 성공을 돕는 일을 시작하라
- ⑦ 고독과 친구가 되는 법을 미리 훈련하라
- ⑧ 생의 마지막까지 지속할 운동기술을 익히라
- ⑨ 병원비를 감당할 보험을 챙겨라
- ⑩ 행복의 원천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라고 정리하고 있다.

이들 모두는 50세가 되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행복의 원천을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라는 것이다.

수명이 마냥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닌 것 같다.

오늘날 재앙이라고까지 일컬어지고 있는 고령화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 사회에서의 문제의 심각성은 세계 최저(1.08)를 기록하고 있는 저출산문제와 맞물리고 있어서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 ① 고령화사회전입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하는 것(프랑스 115년 한국 18년)
- ② 2050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 ③ 2030년 노인인구 지금의 3배
- ④ 2006년 출생아수 1908년의 1/4
- ⑤ 2020년부터 인구감소 시작

정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보육비 증액, 국공립보육원 증설 등

보건복지부 출산장려정책

기업에서는 가족친화적 기업운영운동 → New 패러다임 운동 전개

III 여성 Leader로서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

Leader

이것은 우리에게

Leader란 이끄는 사람이란 뜻으로 우리 모두는 이끌림을 받기도 하고 이끌기도 한다. 우리 모두는 성격을 달리할 뿐 지도자들이다.

어머니나 전업주부들도, 모든 직장인들도 자녀와 가족의 꿈과 행복을 경영하거나 직장인으로서 자기관리를 해야 하는 CEO들이다.

단 그것에 걸맞은 훈련이 필요하다.

지식

인성

오늘 우리는 한 가정의 경영을 책임진 전업주부를 비롯해서, 직장인, 경영인, 공직자 또는 NPO의 활동가로서 각기 Leader임을 확인해야 한다.

여러분은 지역사회발전을 주도할 여성인재들이다.

세계가 21세기의 Global Leader로 주목하고 있는 <여성 Leader>란 남성 Leader와 상반된 개념이 아니며 여성만이 갖고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남성이 못하는 일은 여성도 못하고 여성이 못하는 일은 남성도 못한다. 함께 해야 된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남녀차별철폐가 아니라 남녀공동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보해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여성을 대안적 Leader로 수용하면서

을

세계가 눈에 보이는 이익창출에 골몰하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찾아내고 이것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이 여성 Leader가 가지고 있는 강점으로 인정했다.

학자들은 이러한 여성들이 지역사회, 국가 및 Global 사회의 생존을 좌우하는 Leader들이라고 한다.

여성Leader는 섬김, 평화, 나눔으로 설명되며

개인이 아닌 전체

경쟁이 아닌 조화

이용이 아닌 도움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것 등을 덕목으로 하고 있다.

Leader는 Management와 Leadership을 겸비해야 한다고 한다.

Management란 기업이 중시하는 경영능력으로서 꿈을 꾸는 지도자로서 꿈을 키우고, 꿈을 현실화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같은 꿈을 꾸게 하면서 또 다른 꿈에 목말라하는 것이라고 했다.(21세기 Management라는 책에서)

Leadership이란

꾸준히

① 문제해결의 능력 ② 자기관리능력(시간관리, 평생학습, 자기 삶 등) ③ 상황을 변혁시키는 능력 ④ 국제적 안목 ⑤ 성인지적 사고 능력과 능력이 되고

212

다음 이러한 Leadership 덕목을 50여 년간 시민운동을 하도록 계기를 만들어준 YWCA 지도자들에게서 배^고 배운 것은 활용하려고 노력해오고 있다.

4/4

50년대에 대학에 입학하면서 YWCA에서 만난 김활란, 고헌경, 이태영, 박에스터 등의 여성지도자들의 영향력이 지금의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나의 멘토들이었다. 지침으로 후진을 이끌어 내는 역할

나는 이들의 사적인 생활영역에서도 많은 것을 배웠다.

이태영박사의 정돈된 가정경영, 박에스터선생의 한 치의 틀림도 없는 일처리, 완벽한 손

남침때부터 나눔의 생활, 고향경박사의 사회변화를 위한 열정, 김활란박사의 여성교육열 등 정위는 못했어도 적어도 지금까지 평생 따르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2002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갑자기 불어 닥친 사오정 오륙도의 세대교체 바람으로 평생 할 수 있다고 믿어왔던 Volunteer 일도 나이를 의식하게 되면서 모든 것을 집기로 하고 정리 중에 있을 때 한 권의 책이 아직 현역으로 일을 지속하게 해주었다.

2002년 5월 일본방문 시 한 책방에서 <70세를 넘어서 꽃피운 인생이 있다>라는 책 피 문구에 끌려서 집어든 책 <오노 사다코의 사는 법>이 마침 70세였던 나에게 새로운 삶의 다짐을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이 사람은 80세가 넘어서도 현역으로 국제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본의 마더 테레사로 알려진, 우리나라의 한비야의 미래상을 연상케 하는 일본의 국제적 여성 인재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서울평화상>을 비롯 국제적인 많은 상을 받았다.

그는 1991년 63세로 제8대 UN난민구호기구 판무관으로 임명되었다.

그가 <난민구호의 어머니>로 자리매김한 것은 그의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일의 방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그는 현장중시의 일꾼으로서 책상을 지키고 있었던 전임자와는 달리 150cm에 불과한 작은 체구로 15kg이나 되는 방탄조끼를 입은 채 지구를 수십 번 돌 만큼 난민이 있는 위험지구를 헤집고 다니면서 문제해결에 임했다. 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판무관이라는 권위가 아니라 자신의 인류애에 입각한 신념과 이상을 현장에서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었다.

2002년 동경에서 개최된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한 지원금 모금 국제회의에서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45억불을 모금하는 능력을 과시하는데 그것은 그가 얼마나 인맥관리를 잘하고 있으며 국제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리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보여준 것이다.

그의 Leadership은 UN사무총장 후보로, 또 일본의 수상후보로 거론될 만큼 출중했다.

2001년 75세에는 국가의 최고훈장 수여제의를 거부하였는데 훈장이란 일을 마친 후에 받는 것인데 아직 할 일이 남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 사람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늘어놓는 이유는 그 사람의 삶의 방식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이다.

이 사람은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교 교수로, 유엔기구의 일본대표로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것이 자네 양육이 다 끝나치고 60세가 다 되어서라고 알고 있다. '결혼이란 여성의 긴 인생의 1부에 불과하다'고 하면서도 그는 공직에 있는 남편 뒷바라지를 포함한 가정생활을 충실히 하였다.

그가 늦깎이 사회생활을 훌륭히 해내는데 있어서 삶에 대한 자세는 비판하지도 않고, 조조해하지도 않으면서 서둘지도 않고 착실하게 사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그의 Leadership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학창시절부터

만들어진

터 착실하게 준비한 결과이다.

예를 들어서 그의 영어실력은 제2차 대전 중 정부가 영어교육을 금지하고 있을 때임에도 꾸준히 공부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가 살고 싶은 바람직한 삶은 오노 사다코에게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 해 이화여대 창립 120년 기념행사에서 만난 104세의 동문(유관순 열사와 한 살 차이, 독립운동 같이 함)의 간재함에서, 또 2006년 가을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Mrs. 드러키의 경우에서도 배워야 한다. 94세인 노구에도 불구하고 단신으로 국제여행을 하며 아직도 전문가로서의 연설을 젊은이처럼 할 수 있는 것은 그치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후회하면서 권하고 싶은 것은

자기관리를 게을리 하지 말라는 것이다. 학교교육 제대로 못한 것: 만주→평양→남한

대학생활 6.25동란 중 교회활동에 열중

노년생활 준비 못한 것: 일반 한다고 노는 수단 못배우고

친구의 Network도 소홀

다행이었던 것: 일찍부터 시민사회운동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노년에 공부하는 기회 가진 것

(93년 61세에 영국 케임브리지에 유학)

지금도 Study Group에 끼어서 공부하고 있는 것

아직 못하고 있는 것: 노는 법 배우는 것

여성지도자 여러분 배울 것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후기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포함있는 꿈을 꾸시고

목표와 이행계획을 꼼꼼히 살피시고

Never Too Late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IV 여성연대의 중요성:

핀란드 대통령인 타르야 할로넨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Leader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혼자만의 힘으로 Leader가 될 수 없다>고 한 말이 기억난다. 여성들 간의 Network도 중요하지만 남녀다수가 Partner가 되는 Network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노 사다코도 인맥을 중요시한 것은 혼자서 빛나는 세상은 지났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세상이다.

약자들은 더더욱 연대의 힘을 필요로 한다.

UN을 비롯한 국제회의에서 여성, 청년, 소소민족 등이 자기들만의 사전회의를 통해서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여성연대의 중요성을 대표적인 실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2004년 제17대 국회에 여성의원 100인 보내기 연대

비례직 50% 선출직 30% 공천
선거공영제
지구당 폐지
중. 대 선거구제

① 여성총선연대(302개단체) 정당법 개정 등 제도개혁

정치풍토개혁

② 맑은정치 여성Network(20여명의 여성개인지도자)

102명 여성후보 발굴, 심사후 명부작성, 각 정당에 추천
(사람이 없다 평가 배제)

공천독려, 선거운동, 지지세력 구축, 유권자운동

③ 맑은정치여성기금모금본부(여성재단) 정치자금모금

당선목표: 102명 추천 100명 당선

(정당법 개정전제로 비례직 46명 중 50% 23명

선출직 226명 중 30% 등 = 91명)

성과: 각 정당의 여성후보공천에 Network 추천 거쳤는가

공천조건 1위로

제17대 국회에 제16대 272명 중 16명 → 5.9%

제17대 39명(선출 10명, 비례 29명) → 13.4% (↑)

UN 30%

아시아 14.5%

여성정치참여 101위 → 62위로

27명이 Network 추천자(선출 3명, 비례 19명)

이들의 공동작업으로 성취한 것:

호주제 폐지

성매매방지법

평등문화 정착

간이모니터

270개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한 결과

우수의원 57명 중 여성 12명 30.8%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고질적인 부패정치 청산하고 새 정치의 장을 여는 일

정계에 새바람

이권다툼 정치, 대권위한 정쟁을 그치고

민복, 민생을 위한 생활정치로 전환하지 못함

여성의 삶의 조건 개선 미흡

(소수집단의 참여율이 15% 이상이어야 제 목소리 낼 수 있다.)

아니면 동화 아니면 퇴출된다.

2008년 총선에서는 더 많은 여성위원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

(2) 여성단체들의 연대

- 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② 한국여성단체연합(민중기반운동)
- ③ 여성환경연대(여성환경인연대)
- ④ 여성경제인

과학인 다양한 단체들 동질성 연대

- ⑤ 지역사회 여성단체 Network, 아파트 부녀회 등

다 연대를 통해서 삶의 조건을 개선해내고 있는 Network들이다.

(3) 한국여성재단

1999년 12월 6일에 창립 지난해 12월 6일 창립 7주년을 맞이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을 위한 재단이며

최초의 시민공익재단으로 출범하다(아름다운 재단, 환경재단으로 이어짐)

'딸들에게 희망을!' 기치로 여성단체 지원을 목표로 창립 했고

128개 여성단체와 50여명의 개인여성지도자들의 Network로 추진 되어

각계 남녀 최고지도자 58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구성을 성취해 냈다

대통령 영부인을 명예추진위원장으로 추대 하고

기금 목표는 1000억원으로

IMF사태 와중에서 세상을 놀라게 했다.

지난 6년간 80억원 기금, 45억원 지원금 모금 및 배분 활동을 통해 많은 Partner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2007년도의 지원금 목표는 30억정도 예상 하고 있다

여성재단의 모금성과 저조한 이유

기부문화에도 성차별업존(후발주자에게 뒤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 기부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는 불우이웃돕기에 올인 되어

장학금, 의료사업 등에 몰리고 있다.

공익활동에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향후 활동방향은 여성단체들의 조직적이며 치밀한 Network를 통해서 구걸이 아닌 인구의 반인 여성의 권리로 재 몫을 찾는 노력을 할 것이다.

모금방법은 수입의 1%, 매출의 1%, 유산 1%

특정명목의 기금, 특정지역 기금, 100인 기부 릴레이

지정기탁 등으로

배분은 정기신청사업, 특정기탁사업, 수시지원사업 등

혼자서는 불가능한 과제를 Network를 통해서 이루어내고 있다.

리노이치이

여성단체가 이념영향에서
여성위원이 우리 사회의 역할인
국회를 만들어야 하는 임무가 있다
여성위원들이 정치권이
안정 될 것이다.

기금

큰 글씨

V 맺는 말:

수원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지역의 여성들의 지도력을 양성하며 여성지도자들의 Network를 구축해내고 있는 아주대 여성 Leadership Center의 발전을 기원하고 이미 구축된 여성 Leader Network를 통해서 지방자체단체들의 여성정책의 성인지성을 견인하며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서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그 이끔이들이 되었으면 한다.

I 들어가는 말:

57.6 mm

아주대의 여성 Leadership Center가 2003년에 창설되어 경기 여성 전문 인력 DB구축을 비롯하여 여성정책포럼창립, 지방자치여성후보양성(2006년 지방선거 18명 출마 5명 당선), 지역사회여성 Leader 양성(여성단체장, 여성 CEO)등 다양한 Program으로 400여명의 각 부문의 여성 Leader들의 Network를 만들어 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축하할 일이 아니다.

Center의 설립이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여겨지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갈구하고 있는 새 패러다임, 사람이 중심이 되는 희망공동체 창조에서는 여성과 지역사회의 역할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역사발전의 중심에서 비껴난 주변존재로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여성과 지방이 왜 각광을 받고 있는가?

미래사회는 지역에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변혁이 일어나야 하며

현장실정에 능통한 지역과 여성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영순위자원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시민사회운동에서도 지방화시대의 내 고장 만들기에 시선을 돌리면서 생활자치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생활의 문제점에서 시작되는 풀뿌리운동을 중시하며 각 지역에 시민센터와 지역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정부들도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바라고 있는 행복지수를 높이는 정책을 감수성이 높은 여성들을 통해서 성취해 내기 위해 여성정책에 관심을 집중할 뿐만 아니라 여성고위공직임명도 당연시되며 모든 정

여성정책등성리 책의 성인지성평가가 일상화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바람직한 변화이다.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기를 바란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주문은

<여성 Network>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① 여성 Leader로서 바람직한 삶

② 여성연대의 중요성

3월 20일이거주지역이발표된
당양관 관공약리

③ 여성재단에 대한 간단한 소개 등이다.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바란다면 아주대의 Leadership Center가 나에게 이 기회를 줄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50여 년간의 성평등을 위한 여성운동,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위한 환경운동, 민주사회건설을 위한 시민운동, 삶의 조건을 마련하는 정치활동 등 경제활동을 제외한 다양한 활동을 했다는데서 그 경험을 나누라는 것으로 판단했다.

참가자들과 둘러앉아서 질문과 대화 형식으로 하면 효과적일 수도 있는 내용이 될 것 같다.

II. 오늘의 화두들:

(1) 2007년 벽두의 화두는 희망이다.

희망은 내일을 있게 하는 힘이라는 데서 사람들이 갈망한다.

양극화 해소의 희망

일자리가 생길 거라는 희망

내 집 마련이 ^{가능}될 거라는 희망

교육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희망

북한이 핵을 포기할 거라는 희망

노후가 보장될 거라는 희망

이러한 일반적인 희망사항들은 우리나라 빈곤층의 절대다수인 여성들에게는 보다 절박한 사안들이다.

2006년도 여성계의 화두였던 <빈곤의 여성화>에서 살펴본 빈곤여성들이 겪어야 하는 주택문제, 자녀교육문제, 의료문제들은 남성들에 비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

호주제 폐지 이후 여성문제의 우선과제는 경제적 평등이다.

경제적 성별불균형을 그대로 둔 채 여성의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여성의 경쟁력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새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는 데

빈곤층의 절대다수인 여성

서 근래에 와서 경제적 성평등 인식이 생기게 된 것은 다행이다.

정부의 예산집행을 비롯한 모든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증거이다.

2007년도에는 우리나라의 최고 정책결정자를 선택하는 대통령선거가 있다.

좋은 기회이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정치계절마다 경험하고 있는 권력싸움에 파묻혀 생활정치, 민생정치가 실종되는 상황이 거듭되지 않도록 여성들이 확실한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2) 21세기는 여성의 세기이다.

오늘의 세계가 여성발전을 국가의 발전척도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전 세계가 총체적인 위기국면에서 문제해결의 대안으로서 여성들이 전면에서 나서게 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들이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고 들 한다.

한 가정에서도 위기에 처하면 주부들이 나서게 되어있다.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위기에 처한 정당들이 저마다 위기극복의 일환으로 여성을 당대표, 선거대책위원장 혹은 대변인으로 내세워 선거를 치른 것을 기억한다. 그것은 여성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 다르고 또한 지금까지 써보지 않은 잠재력에 기대를 걸기 때문일 것이다. 덕분에 여성들이 정치력을 검증받는 기회가 되어서 여성총리도 임명되고 차기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로 여성들이 나서게 된 것이다.

왜 여성들인가?

20세기는 White Collar 또는 Blue Collar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상상력과 창의성 발휘가 높은, 부가가치가 되는 Gold Collar 그리고 부드럽고 섬세한 감성이 요구되는 Pink Collar 시대이다.

110대 미국의회가 개원하던 지난 1월 4일 미국 역사상 첫 여성하원의장으로 선출된 66세의 낸시 펠로시는 새로운 시대 개막을 선언하는 20분간

미국에서도 <임분근위안책> 작지만 > 제행리미움로 로비할론

행임인임과 소리쪽쪽

2000(2003) 3차 회로 상임위원위원복합 (2차) Tm기

3차회

반향임원 & But

분회위원로회

의 연설에서 '200년 이상 기다린 이 역사적인 순간은 우리 딸들과 손녀들
을 위해 대리석 천장(유리천장이 아닌)을 깨부수고 딸들과 손녀들에게 이
제는 하늘이 한계인 세상을 열었다'고 했다.

1412장

임원위원로회

그리고 그는 단상에 자신의 손자들과 의원들의 자녀들을 불러올려서 '우
리 자식들, 미국의 어린이들을 위해'라며 의사봉을 두드렸다는 것이다.

임원위원로회

분회위원로회

강
힘의 논리, 강자의 논리에 젖어있는 남성 정치인들에게서는 기대하기 어
려운 그림이다. 선서 직후 그는 <의원윤리법>개정안을 부패정당으로 낙인
찍힌 공화당 의원들도 합세하게 해서 430:1로 가결시켜(강) 로비스트들의
선물이나 식사제공도 금지하는데 성공했다. 여성이기에 해낼 수 있었던
쾌거였다.

전세계에 여풍이 몰아치고 있다고 한다.

정치계에는 칠레의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프랑스의 세골렌 루아얄 사회당 대통령 후보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등

경제계에는 인드라 누이가 캡시의 첫 여성 CEO로 맹활약하고 있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주목되는 대목은 프랑스의 루아얄 대통령후보는 강력한 Image의 상대 당
남성후보에 맞서 여성 특유의 부드러움과 여러 자녀를 가진 따뜻한 모성
성을 내세우고 있는 점이다. 과거에는 내세워서 손해 보는 덕목이었다.

우리나라의 여성도 못지않다. 여성총리, 여성대통령 후보 등 비록 2006년
도 우리나라의 여성권한척도가 75개국 중 53위임에도 여성대법관, 장관,
장관급직,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여성 지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야심찬 여성들이 다수 배
출되고 새로운 부문에 도전장을 던지는 여성들이 늘어나야 한다.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이 실력으로 당당하게 절반의 몫을 차지하는 날을
앞당기는데 여러분은 기여해야 한다.

(3) 인생을 이모작하라.

통계청에서는 지난 40년간 수명이 20년 늘어났으며 앞으로는 더 빠른 추세로 수명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2005 남 75.1세 여 81.9세)

미국의 어떤 조사에 따르면 첨단기술을 발달로 180세 수명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

생물학자인 최재열 이대석좌교수는 2005년 펴낸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는 책에서 100세 인생을 전, 후반으로 나누어서 전반부는 자녀양육 등 먹고사는 문제의 의무의 삶을 산다면 후반부의 삶은 자기의 보람을 찾는 생으로 살라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권유하는 것은 50세 이후의 30~50년간의 후기 삶을 위해 전반부의 삶에서 적어도 10년간은 투자해서 공부하고 노는 법도 배우고 함께 늙어갈 친구관계를 확실히 다져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것을 최교수는 <행복 Network>라고 하고 있다.

세계적 경영학 석학인 피터 드러커교수는 젊었을 때부터 시민사회운동에 참가하는 것이 행복한 노년을 마련하는 길이라고 하기도 한다.

어떤 신문기사에서 본 아름다운 '인생 2막'을 여는 10가지 열쇠를 소개하면:

- ① 유서를 미리 써보라
- ② 다시 공부를 시작하라
- ③ 노는 법을 배워라
- ④ 행복네트워크를 구축하라
- ⑤ 가족과 1:1 만남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만들라
- ⑥ 누군가의 성공을 돕는 일을 시작하라
- ⑦ 고독과 친구가 되는 법을 미리 훈련하라
- ⑧ 생의 마지막까지 지속할 운동기술을 익히라
- ⑨ 병원비를 감당할 보험을 쟁겨라

⑩ 행복의 원천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라고 정리하고 있다.

이들 모두는 50세가 되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행복의 원천을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라는 것이다.

수명이 마냥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닌 것 같다.

오늘날 재앙이라고까지 일컬어지고 있는 고령화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 사회에서의 문제의 심각성은 세계 최저(1.08)를 기록하고 있는 저출산문제와 맞물리고 있어서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① 고령화사회진입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하는 것(프랑스 115년 한국 18년)

② 2050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③ 2030년 노인인구 지금의 3배

사회보장비 부담: 05년 8:1, 20년 4:1, 50년 1:1

④ 2006년 출생아수 1908년의 $\frac{1}{2}$

⑤ 2020년부터 인구감소 시작

정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보육비 증액, 국공립보육원 증설 등

보건복지부 출산장려정책

기업에서는 가족친화적 기업운영운동→New 패러다임 운동 전개

III 여성 Leader로서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

Leader란 이끄는 사람이란 뜻으로 우리 모두는 이끌림을 받기도 하고 이끌기도 한다. 우리 모두는 성격을 달리할 뿐 지도자들이다.

어머니나 전업주부들도, 모든 직장인들도 자녀와 가족의 꿈과 행복을 경영하거나 직장인으로서 자기관리를 해야 하는 CEO들이다.

단 그것에 걸맞은 훈련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는 한 가정의 경영을 책임진 전업주부를 비롯해서, 직장인, 경영

인, 공직자 또는 NPO의 활동가로서 각기 Leader임을 확인해야 한다.

여러분은 지역사회발전을 주도할 여성인재들이다.

세계가 21세기의 Global Leader로 주목하고 있는 <여성 Leader>란 남성 Leader와 상반된 개념이 아니며 여성만이 갖고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남성이 못하는 일은 여성도 못하고 여성이 못하는 일은 남성도 못한다. 함께 해야 된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남녀차별철폐가 아니라 남녀공동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보해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여성을 대안적 Leader로 수용하면서

세계가 눈에 보이는 이익창출에 골몰하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찾아내고 이것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여성 Leader가 가지고 있는 강점으로 인정했다.

학자들은 이러한 여성들이 지역사회, 국가 및 Global 사회의 생존을 좌우하는 Leader들이라고 한다.

여성Leader는 섬김, 평화, 나눔으로 설명되며

개인이 아닌 전체

경쟁이 아닌 조화

이용이 아닌 도움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것 등을 덕목으로 하고 있다.

Leader는 Management와 Leadership을 겸비해야 한다고 한다.

Management란 기업이 중시하는 경영능력으로서 꿈을 꾸는 지도자로서 꿈을 키우고, 꿈을 현실화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같은 꿈을 꾸게 하면서 또 다른 꿈에 목말라하는 것이라고 했다.(21세기 Management라는 책에서)

Leadership이란

① 문제해결의 능력 ② 자기관리능력(시간관리, 평생학습, 자기 삶 등) ③ 상황을 변혁시키는 능력 ④ 국제적 안목 ⑤ 성인지적 사고

나는 이러한 Leadership 덕목을 50여 년간 시민운동을 하도록 계기를 만

들어준 YWCA 지도자들에게서 배우고 배운 것은 활용하려고 노력해오고 있다.

50년대에 대학에 입학하면서 YWCA에서 만난 김활란, 고황경, 이태영, 박에스더 등의 여성지도자들의 영향력이 지금의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나의 멘토들이었다.

나는 이들의 사적인 생활영역에서도 많은 것을 배웠다.

이태영박사의 정돈된 가정경영, 박에스더선생의 한 치의 틀림도 없는 일처리, 깔끔한 손님접대 등 나눔의 생활, 고황경박사의 사회변화를 위한 열정, 김활란박사의 여성교육열 등 성취는 못했어도 적어도 지금까지 평생 따르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2002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갑자기 불어 닥친 사오정 오륙도의 세대교체 바람으로 평생 할 수도 있다고 믿어왔던 Volunteer 일도 나이를 의식하게 되면서 모든 것을 접기로 하고 정리 중에 있을 때 한 권의 책이 아직 현역으로 일을 지속하게 하여주었다.

2002년 5월 일본방문 시 한 책방에서

<70세를 넘어서 꽃피운 인생이었다>라는 책 띠 문구에 끌려서 집어든 책 <오노 사다코의 사는 법>이 마침 70세였던 나에게 새로운 삶의 다짐을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이 사람은 80세가 넘어서도 현역으로 국제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본의 마더 테레사로 알려진, 우리나라의 한비야의 미래상을 연상케 하는 일본의 국제적 여성인재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서울평화상>을 비롯 국제적인 많은 상을 받았다.

그는 1991년 63세로 제8대 UN난민구호기구 관무관으로 임명되었다.

그가 <난민구호의 어머니>로 자리매김한 것은 그의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일의 '방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그는 현장중시의 일꾼으로서 책상을 지키고 있었던 전임자와는 달리 150

cm에 불과한 작은 체구로 15kg이나 되는 방탄조끼를 입은 채 지구를 수십 번 돌 만큼 난민이 있는 위험지구를 헤집고 다니면서 문제해결에 임했다. 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판무관이라는 권위가 아니라 자신의 인류애에 입각한 신념과 이상을 현장에서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었다.

2002년 동경에서 개최된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한 지원금 모금 국제회의에서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45억불을 모금하는 능력을 과시하였는데 그것은 그가 얼마나 인맥관리를 잘하고 있으며 국제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리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보여준 것이다.

그의 Leadership은 UN사무총장 후보로, 또 일본의 수상후보로 거론될 만큼 출중했다.

2001년 75세에는 국가의 최고훈장 수여제의를 거부하였는데 훈장이란 일을 마친 후에 받는 것인데 아직 할 일이 남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 사람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늘어놓는 이유는 그 사람의 삶의 방식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이다.

이 사람은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교 교수로, 유엔기구의 일본대표로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것이 자녀 양육이 다 끝나치고 60세가 다 되어서라고 알고 있다. '결혼이란 여성의 긴 인생의 1부에 불과하다'고 하면서도 그는 공직에 있는 남편 뒷바라지를 포함한 가정생활을 충실히 하였다.

그가 늦깎이 사회생활을 훌륭히 해내는데 있어서 삶에 대한 자세는 비판하지도 않고, 초조해하지도 않으면서 서둘지도 않고 착실하게 사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그의 Leadership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학창시절부터 착실하게 준비한 결과이다.

예를 들어서 그의 영어실력은 제2차 대전 중 정부가 영어교육을 금지하고 있을 때임에도 꾸준히 공부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가 닮고 싶은 바람직한 삶은 오노 사다코에게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 해 이화여대 창립 120년 기념행사에서 만난 104세의 동문(유관순 열사와 한 살 차이, 독립운동 같이 함)의 건재함에서, 또 2006년 가을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Mrs. 드러커의 경우에서도 배워야 한다. 94세인 노구에도 불구하고 단신으로 국제여행을 하며 아직도 전문가로서의 연설을 젊은이처럼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후회하면서 권하고 싶은 것은
자기관리를 게을리 하지 말라는 것이다.

학교교육 제대로 못한 것: 만주→평양→남한

대학생활 6.25동란 중 교회활동에 열중

노년생활 준비 못한 것: 일만 한다고 노는 수단 못배우고

주변 친구의 Network도 소홀

다행이었던 것: 일찍부터 시민사회운동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노년에 공부하는 기회 가진 것

(93년 61세에 영국 케임브리지에 유학)

지금도 Study Group에 끼어서 공부하고 있는 것

아직 못하고 있는 것: 노는 법 배우는 것

여성지도자 여러분 배울 것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후기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요?

보람있는 꿈을 꾸시고

목표와 이행계획을 꼼꼼히 살피시고

Never Too Late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IV 여성연대의 중요성:

핀란드 대통령인 타르야 할로넨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Leader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혼자만의 힘으로 Leader가 될 수 없다>고 한 말이 기억난다. 여성들 간의 Network도 중요하지만 남녀다수가 Partner가 되는 Network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노 사다코도 인맥을 중요시한 것은 혼자서 빛나는 세상은 지났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세상이다.

약자들은 더더욱 연대의 힘을 필요로 한다.

UN을 비롯한 국제회의에서 여성, 청년, 소소민족 등이 자기들만의 사전회의를 통해서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여성연대의 중요성을 대표적인 실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2004년 제17대 국회에 여성의원 100인 보내기 연대:

비례직 50% 선출직 30% 공천

선거공영제

지구당 폐지

중, 대 선거구제

① 여성총선연대(302개단체) 정당법 개정 등 제도개혁

정치풍토개혁

② 맑은정치 여성Network(20여명의 여성개인지도자)

102명 여성후보 발굴, 심사후 명부작성, 각 정당에 추천
(사람이 없다 핑계 배제)

공천독려, 선거운동, 지지세력 구축, 유권자운동

③ 맑은정치여성기금모금본부(여성재단) 정치자금모금

당선목표: 102명 추천 100명 당선

정당법 개정전제로 비례직 46명 중 50% 23명

선출직 226명 중 30% 등 =91명

성과: 각 정당의 여성후보공천에 Network 추천 거쳤는가

공천조건 1위로

제17개 국회에 제16대 272명 중 16명→5.9%

제17대 39명(선출 10명, 비례 29명)-13.4%

UN 30%

아시아 14.5%

여성정치참여 101位→62位로

27명이 Network 추천자(선출 3명, 비례 19명)

이들의 공동작업으로 성취한 것:

호주제 폐지

성매매방지법 평등문화 정착

270개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한 결과

우수의원 57명 中 여성 12명 30.8%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고질적인 부패정치 청산하고 새 정치의 장을 여는 일

정계에 새바람

이권다툼 정치, 대권위한 정쟁을 그치고

민복, 민생을 위한 생활정치로 전환하지 못함

여성의 삶의 조건 개선 미흡

소수집단의 참여율이 15%이상이어야 제 목소리 낼 수 있다.

아니면 동화 아니면 퇴출된다.

2008년 총선에서는 더 많은 여성위원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

(2) 여성단체들의 연대

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② 한국여성단체연합(민중기반운동)

③ 여성환경연대(여성환경인연대)

④ 여성경제인

과학인 다양한 단체들 동질성 연대

⑤ 지역사회 여성단체 Network, 아파트 부녀회 등

다 연대를 통해서 삶의 조건을 개선해내고 있는 Network들이다.

(3) 한국여성재단

1999년 12월 6일에 창립 지난해 12월 6일 창립 7주년을 맞이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을 위한 재단이며

최초의 시민공익재단으로 출범하다(아름다운 재단, 환경재단으로 이어짐)

‘딸들에게 희망을!’기치로 여성단체 지원을 목표로 창립

128개 여성단체와 50여명의 개인여성지도자들의 Network로 추진

각계 남녀 최고지도자 58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구성

대통령 영부인을 명예추진위원장으로 추대

기금 목표는 1000억원

IMF사태 와중에서 세상을 놀라게 하다.

지난 6년간 80억원 기금, 45억원 지원금 모금 및 배분

2007년도의 지원금 목표는 30억정도 예상

여성재단의 모금성과 저조

기부문화에도 성차별업존(후발주자에게 뒤지고 있다)

→빈곤의 여성화 현상

우리나라의 기부풍토는 불우이웃돕기에 올인

장학금, 의료사업 등에 몰리고 있다.

공익활동에는 인식

향후 활동방향은 여성단체들의 조직적이며 치밀한 Network를 통해서 구
결이 아닌 인구의 반인 여성의 권리로 제 몫을 찾는 노력을 할 것이다.

모금방법은 수입의 1%, 매출의 1%, 유산 1%

특정명목의 기금, 특정지역 기금, 100인 기부 릴레이

지정기탁 등으로

배분은 정기신청사업, 특정기탁사업, 수시지원사업 등

혼자서는 불가능한 과제를 Network를 통해서 이루어내고 있다.

V 맺는 말:

수원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지역의 여성들의 지도력을 양성하며 여성지도자들의 Network를 구축해내고 있는 아주대 여성 Leadership Center의 발전을 기원하고

이미 구축된 여성 Leader Network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여성정책의 성인지성을 견인하며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서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그 이끔이들이 되었으면 한다.

아주대 여성 Leadership Center 동문회 특강

2007-1-17 6:20~7:00PM

수원 호텔캐슬 6층 다이아몬드룸

Center 동문 400여명

정치에 관심있는 여성들, 직장여성들, 일반여성들, 지방의원들

I 들어가는 말:

아주대의 여성 Leadership Center가 2003년에 창설되어 경기여성전문인력 DB구축을 비롯하여 여성정책포럼창립, 지방자치여성후보양성(2006년 지방선거 18명 출마 5명 당선), 지역사회여성 Leader 양성(여성단체장, 여성 CEO)등 다양한 Program으로 400여명의 각 부문의 여성 Leader들의 Network를 만들어 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축하할 일이 아니다.

일반인의
주목으로

Center의 설립이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여겨지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갈구하고 있는 새 패러다임, 사람이 중심이 되는 희망공동체 창조에서는 여성과 지역사회의 역할이 핵심이 된 때문이다.

지금까지 역사발전의 중심에서 비껴난 주변존재로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여성과 지방이 왜 각광을 받고 있는가?

미래사회는 지역에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변혁이 일어나야 하며

현장실정에 능통한 지역과 여성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영순위자원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시민사회운동에서도 지방화시대의 내 고장 만들기에 시선을 돌리면서 생활자치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생활의 문제점에서 시작되는 풀뿌리운동을 중시하며 각 지역에 시민센터와 지역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정부들도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바라고 있는 행복지수를 높이는 정책을 감수성이 높은 여성들을 통해서 성취해 내기 위해 여성정책에 관심을 집중할 뿐만 아니라 여성고위공직임명도 당연시하며 모든 정책의 성별영향평가가 일상화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바람직한 변화이다. 센터의 과정을 거치신 준비된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활동한다면 이 지역사회발전은 명약관화하다.

→ 우리 여성들이 어떻게 할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주문은

<여성 Network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 ① 여성 Leader로서 바람직한 삶
- ② 여성연대의 중요성
- ③ 여성재단에 대한 간단한 소개 등이다.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바란다면 아주대의 Leadership Center가 나에게 이 기회를 줄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50여 년간의 성평등을 위한 여성운동,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위한 환경운동, 민주사회건설을 위한 시민운동, 삶의 조건을 마련하는 정치활동 등 경제활동을 제외한 다양한 활동을 했다는데서 그 경험을 나누라는 뜻으로 판단했다.

참가자들과 둘러앉아서 느긋하게 질문과 대화 형식으로 하면 효과적일 수도 있는 내용이 될 것 같다.

II 오늘의 화두들 *동이야기 하수조로 기록해둬야*

두려워라 (1) 2007년 벽두의 화두는 **희망이다.**

희망은 내일을 있게 하는 힘이라는 데서 사람들이 갈망한다.

삶의 조건을 만드는 정치권이 정쟁에만 급급해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불안이 극에 달

해있어서이다

양극화 해소의 희망

일자리가 생길 거라는 희망

내 집 마련이 될 거라는 희망

교육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희망

북한이 핵을 포기할 거라는 희망

노후가 보장될 거라는 희망

이러한 서민들의 희망사항들은 우리나라의 절대다수인 빈곤여성들에게는 보다 절박한 사안들이다.

2006년도 여성계의 화두였던 <빈곤의 여성화>에서 살펴본 빈곤여성들이 겪어야 하는 주택문제, 자녀교육문제, 의료문제들은 남성들에 비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부하가 심각하다.

호주제 폐지 이후 여성문제의 우선과제는 경제적 평등이다.

이런 경제침체를 지속시키므로 중산층과 서민이 등이 휘어지고 정책의 그늘에서 소외되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잃고 불안해하고 우왕좌왕하는 것.

경제적 성별불균형을 그대로 둔 채 여성의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여성의 경쟁력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새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는 데서 근래에 와서 경제적 성평등 인식이 생기게 된 것은 희망적이다. 하지만 여성들이 절대다수인 비정규직, 저임금 문제 등의 해결은 그 갈 길이 멀다.

정부의 예산집행을 비롯한 모든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증거이다. *이제 하고 있는 것*

2007년도에는 우리나라의 최고 정책결정자를 선택하는 **대통령선거**가 있다. *취급처 받고*

좋은 기회이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가장 중요*

선거권이 될 때 정치계절마다에서 경험하고 있는 권력싸움에 **파문**한 생활정치, 민생**정치**가 실종되는 상황이 거듭되지 않도록 여성들이 **나서서** 감시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이러지*

(2) 21세기는 여성의 세기이다-전 세계에 여풍이 몰아치고 있다. *2008년 12월 30일 여성이여는 어려움을 21세기 후반에 여성이여는 풍요의 시대를*

오늘의 세계가 여성발전을 국가의 발전척도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전 세계가 총체적인 위기국면에서 문제해결의 대안으로서 여성들이 전면에서 나서게 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들이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고들 한다.

한 가정에서도 위기에 처하면 주부들이 나서게 되어있다.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위기에 처한 정당들이 저마다 위기극복의 방편으로 여성을 당대표, 선거대책위원장 혹은 대변인으로 내세워 선거를 치른 것을 기억한다. 그것은 유권자들이 여성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 다르고 그리고 지금까지 써보지 않은 잠재력에 기대를 걸기 때문일 것이다. 덕분에 여성들이 정치력을 검증받는 기회가 되어서 여성총리도 임명되고 차기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로 여성들이 거명되고 있다.

왜 여성들인가? *21세기 시대*

20세기가 White Collar 또는 Blue Collar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상상력과 창의성 발휘가 높은 부가가치가 되는 Gold Collar 그리고 부드럽고 섬세한 감성이 요구되는 Pink Collar 세기이다.

110대 미국의회가 개원하던 지난 1월 4일 미국 역사상 첫 여성하원의장으로 선출된 66세의 낸시 펠로시는 새로운 시대 개막을 선언하는 20분간의 연설에서 '200년 이상 기다린 이 역사적인 순간은 우리 딸들과 손녀들을 위해 대리석 천장(유리천장이 아닌)을 깨부수고 딸들과 손녀들에게 이제는 하늘이 한계인 세상을 열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단상에 자신의 손자들과 의원들의 자녀들을 불러올려서 '우리 자식들, 미국의 어린이들을 위해'라며 의사봉을 두드렸다는 것이다.

1985년 3월 4일 박정희가 의회 진출을 위해 황신(李信)으로 간칭자로 등장한 공화당

힘위 논리, 강자의 논리에 져어있는 남성 정치인들에게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그림이다. 선서 직후 그는 <의원윤리법> 개정안을 부패정당으로 낙인찍힌 공화당 의원들도 합세하게 해서 430:1로 가결시켜 로비스트들의 선물이나 식사제공도 금지하는데 성공했다. 여성이기에 해낼 수 있었던 쾌거였다. 여성의장 진출이 대의회 로비활동의 양상을 바꾸기도 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전 세계에 여풍이 몰아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정치계에는 칠레의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프랑스의 세골렌 루아얄 사회당 대통령 후보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등

경제계에는 인드라 누이가 펩시의 첫 여성 CEO로 맹활약하고 있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주목되는 대목은 프랑스의 루아얄 대통령후보는 강력한 좌우파, 성대결의 상대 당 남
성후보에 맞서 여성 특유의 부드러움과 여러 자녀를 가진 따뜻한 모성성을 내세우고
있는 점이다. 과거에는 내세워서 손해 보는 덕목이었다. *승리 즉 지켜볼 일임*

우리나라의 여성도 못지않다. 여성총리, 여성대통령 후보 등 비록 2006년도 우리나라
의 여성권한척도가 75개국 중 53위임에도 여성대법관, 장관, 장관급직, 국회의원, 지
방의원 등 여성 지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부터는 여자가 권력으로 장점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야심찬 여성들이 다수 배출되고 새로
운 부문에 도전장을 던지는 여성들이 늘어나야 한다. *계속해서 권력을 잡아야 한다*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이 실력으로 당당하게 절반의 몫을 차지하는 날을 앞당기는데 *강한 여성들이 되고 싶다*
여러분은 기여해야 한다.

대부분의 권력

(3) 인생을 이모작하라. *유쾌*

통계청에서는 지난 40년간 수명이 20년 늘어났으며 앞으로는 더 빠른 추세로 수명이
늘어난다고 했다. (2005 남 75.1세 여 81.9세)

미국의 어떤 조사에 따르면 첨단기술의 발달로 180세 수명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
생물학자인 최재천 이대석교수는 2005년 펴낸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는 책에
서 100세 인생을 전, 후반으로 나누어서 전반부는 자녀양육 등 먹고사는 문제의 의무
의 삶을 산다면 후반부의 삶은 자기의 보람을 찾는 생으로 살라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권유하는 것은 50세 이후의 30~50년간의 후기 삶을 위해 전반부의 삶에서

적어도 10년간은 투자해서 공부하고 노는 법도 배우고 함께 늙어갈 친구관계를 확실히 다져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것을 최교수는 <행복 Network>라고 하고 있다. 세계적 경영학 석학인 피터 드러커교수는 젊었을 때부터 시민사회운동에 참가하는 것이 행복한 노년을 마련하는 첩경이라고 하기도 한다. 최교수와 또 다른 50대 교수가 지적인 아름다운 '인생 2막'을 여는 10가지 열쇠를 소개하면:

- ① 유서를 미리 써보라
- ② 다시 공부를 시작하라
- ③ 노는 법을 배워라
- ④ 행복네트워크를 구축하라
- ⑤ 가족과 1:1 만남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만들라
- ⑥ 누군가의 성공을 돕는 일을 시작하라
- ⑦ 고독과 친구가 되는 법을 미리 훈련하라
- ⑧ 생의 마지막까지 지속할 운동기술을 익히라
- ⑨ 병원비를 감당할 보험을 챙겨라
- ⑩ 행복의 원천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라고 하고 있다.

이들 모두는 50세가 되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인데 ^{바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행복의 원천을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라는 것이다.

수명이 마냥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닌 것 같다.

오늘날 재앙이라고까지 일컬어지고 있는 **고령화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 사회에서의 문제의 심각성은 세계 최저(1.08)를 기록하고 있는 저출산문제와 맞물리고 있어서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① 고령화사회진입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하는 것(프랑스 115년 한국 18년)

② 2050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③ 2030년 노인인구 지금의 3배

사회보장비 부담: 05년 8:1, 20년 4:1, 50년 1:1

④ 2006년 출생아수 1908년의 1/2

⑤ 2020년부터 인구감소 시작

정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보육비 증액, 국공립보육원 증설 등

보건복지부 출산장려정책

기업에서는 가족친화적 기업운영운동(가정과 직장생활의 조화)

→New 패러다임 운동 전개

III 여성 Leader로서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 *여성을 리더십을 영위해 주고* *여성 Leader로서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 여성 리더십*

Leader란 이끄는 사람이란 뜻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이끌림을 받기도 하고 이끌기도 한다. 우리 모두는 성격을 달리할 뿐 Leader들이다.

어머니나 전업주부들도, 모든 직장인들도 자녀와 가족의 꿈과 행복을 경영하거나 직장인으로서 자기관리를 해야 하는 CEO들이다.

단 그것에 걸맞은 훈련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는 한 가정의 경영을 책임진 전업주부를 비롯해서, 직장인, 경영인, 공직자 또는 NPO의 활동가로서 각기 자신이 Leader임을 인정해야 한다.

여러분은 지역사회발전을 주도할 여성인재들이다. *오늘 학업에 힘쓰기 바란다*

세계가 21세기의 Global Leader로 주목하고 있는 <여성 Leader>란 남성 Leader와 상반된 개념이 아니며 여성만이 갖고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남성이 못하는 일은 여성도 못하고 여성이 못하는 일은 남성도 못한다. 함께 해야 된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남녀차별철폐가 아니라 남녀공동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보해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여성을 대안적 Leader로 수용하면서

세계가 눈에 보이는 이익창출에 골몰하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찾아내고 이것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여성 Leader가 가지고 있는 강점으로 인정했다.

학자들은 이러한 여성들이 지역사회, 국가 및 Global 사회의 생존을 좌우하는 Leader들이라고 한다.

여성Leader는 섬김, 평화, 나눔으로 설명되며

개인이 아닌 전체

경쟁이 아닌 조화

이용이 아닌 도움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것 등을 덕목으로 하고 있다.

Leader는 Management와 Leadership을 겸비해야 한다고 한다.

이 12기
Management란 기업이 중시하는 경영능력으로서 꿈을 꾸는 지도자로서 꿈을 키우고, 꿈을 현실화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같은 꿈을 꾸게 하면서 또 다른 꿈에 목말라 하는 것이라고 했다.(21세기 Management라는 책에서)

Leadership이란

① 문제해결의 능력 ② 자기관리능력(시간관리, 평생학습, 자기 삶 등) ③ 상황을 변혁시키는 능력 ④ 국제적 안목 ⑤ 성인지적 사고능력 등이라고 한다. 이러한 것들을 *리더십을 통해*

나는 이러한 Leadership의 덕목을 50여 년간 시민운동을 하도록 계기를 만들어준 *인생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리더십 YWCA 지도자들에게서 배웠고 그리고 배운 것은 활용하려고 노력해오고 있다.

50년대에 대학에 입학하면서 YWCA에서 만난 여성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지금의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나의 멘토들이었다. 지금은 후진들에게서 매일매일 배우고 있다. *이것이 멘토들이*

나는 이들의 사적인 생활영역에서도 많은 것을 배웠다.

이런 일을 배웠다 정돈된 가정경영, 박에스터선생의 한 치의 틀림도 없는 일처리,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나누어먹는 것을 포함한 나눔의 생활, 사회변화를 위한 열정, 개척정신 등 제가 평생 닦으려고 애쓰는 *한 사람* 생활양식이다.

2002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갑자기 불어 닥친 사오정 오륙도의 세대교체 바람으로 평생 할 수 있다고 믿어왔던 Volunteer 일도 나이를 의식하게 되면서 모든 것을 접기로 하고 정리 중에 있을 때 한 권의 책이 지금까지 현역으로 일을 지속하게 하는데 주효했다. 책의 주인공이 사는 방식이 바람직한 여성 지도자의 바람직한 삶의 모델이라고 여겨져 소개한다. *청주에서부터 무리함을 짐쳐 못했지.*

2002년 5월 일본방문 시 한 책방에서

<70세를 넘어서 꽃피운 인생이 있다>라는 책 띠 문구에 끌려서 집어든 책 <오노 사다코의 사는 법>이 마침 70세였던 나에게 새로운 다짐을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늘 60세 70세*

이 사람은 80세가 넘어서도 현역으로 국제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본의 마더 테레사로 알려진, 우리나라의 한비야의 미래상을 연상케 하는 일본의 국제적 여성인재이다.

그는 그는 국제적인 많은 상을 받았다.

그는 1991년 63세로 제8대 UN난민구호기구 관무관으로 임명되었다.

그가 <난민구호의 어머니>로 자리매김된 것은 그의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일의 방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그는 현장을 중시하는 일꾼으로서 책상을 지키고 있었던 전임자와는 달리 150cm에 불과한 작은 체구로 15kg이나 되는 방탄조끼를 입은 채 지구를 수십 번 돌 만큼 난민이 있는 위험지구를 헤집고 다니면서 문제해결에 임했다. 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관무관이라는 권위가 아니라 자신의 인류애에 입각한 신념과 이상을 현장에서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었다.

2002년 동경에서 개최된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한 지원금 모금 국제회의에서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45억불이라는 거액을 모금하는 능력을 과시했는데 그것은 그가 얼마나 인맥관리를 잘하고 있으며 국제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리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보여준 것이다.

그의 Leadership은 UN사무총장 후보로, 또 일본의 수상후보로 거론될 만큼 출중했

다. *당초 국제적인 세리상을 맡고 있었기 때문*

2001년 75세시 국가의 최고훈장 수여제의를 거부하였는데 훈장이란 일을 마친 후에 받는 것인데 아직 할 일이 남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 사람은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교 교수로, 유엔기구의 일본대표로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것이 자녀 양육이 다 끝나치고 60세가 다 되어서였다고 한다. '결혼이란 여성의 긴 인생의 1부에 불과하다'고 하면서도 그는 공직에 있는 남편 뒷바라지를 포함한 가정생활을 충실히 하였다.

그가 늦깎이 사회생활을 훌륭히 해낸 삶에 대한 자세는 비판하지도 않고, 초조해하지도 않으면서 서둘지도 않고 착실하게 사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러한 그의 Leadership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학창시절부터 착실하게 준비한 결과이다.

예를 들어서 그의 영어실력은 제2차 대전 중 정부가 영어교육을 금지하고 있을 때임에도 꾸준히 공부했다는 것이다.

그도 평생토록 40대까지만 영어 실력을 향상시켰다
우리가 달고 싶은 바람직한 삶은 오노 사다코에게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 해 이화여대 창립 120년 기념행사에서 만난 104세의 동문(유관순 열사와 한 살 차이, 독립운동 같이 함)의 건재함에서, 또 2006년 가을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Mrs. 드러커의 경우에서도 배워야 한다. 94세인 노구에도 불구하고 단신으로 국제여행을 하며 아직도 전문가로서의 연설을 젊은이처럼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평생 공부하면서 열심히 한 데서 만들어진 것임.

내가 후회하면서 후배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자기관리를 게을리 하지 말라는 것이다. 나는 나의 관리를 잘 못한 사람이다.

학교교육 제대로 못한 것: 만주→평양→남한

대학생활 6.25동란 중 교외활동에 열중

노년생활 준비 못한 것: 일만 한다고 노는 수단 못배우고

친구의 Network도 소홀

다행이었던 것: 일찍부터 시민사회운동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노년에 공부하는 기회 가진 것

(93년 61세에 영국 케임브리지에 유학)

지금도 Study Group에 끼어서 공부하고 있는 것

비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공부
신념고 공부할 권리.

아직 못하고 있는 것: 노는 법 배우는 것

자기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어떤 핑계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여러분이야말로 후기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Never Too Late이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IV 여성연대의 중요성:

핀란드 대통령인 타르야 할로넨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Leader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혼자만의 힘으로 Leader가 될 수 없다>고 한 말이 기억난다. 여성들 간의 Network도 중요하지만 남녀다수가 Partner가 되는 Network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노 사다코도 인맥을 중요시한 것은 혼자서 빛나는 세상은 지났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세상이다.

약자들은 더더욱 연대의 힘을 필요로 한다.

UN을 비롯한 국제회의에서 여성, 청년, 소소민족 등이 자기들만의 사전회의를 통해서 집단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여성연대의 중요성을 대표적인 실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2004년 제17대 국회에 여성의원 100인 보내기 연대:

① 여성총선연대(302개단체) 정당법 개정 등 제도개혁 정치풍토개혁

비례직 50% 선출직 30% 공천

선거공영제

지구당 폐지

중, 대 선거구제

② 맑은정치 여성Network(80여명의 여성개인지도자)

102명 여성후보 발굴, 심사후 명부작성, 각 정당에 추천(사람이 없다 핑계 배제)

공천독려, 선거운동, 지지세력 구축, 유권자운동

③ 맑은정치여성기금모금본부(여성재단) 정치자금모금

당선목표: 102명 추천 100명 당선

(정당법 개정전제로 비례직 46명 중 50% 23명

선출직 226명 중 30% 등 =91명)

성과: 각 정당의 여성후보공천에 Network 추천 거쳤는가가 공천조건 1위로

제16대 272명 중 16명→5.9%

제17대 39명(선출 10명, 비례 29명)-13.4%(UN 30%, 아시아 14.5%)

여성정치참여 101위→62위로

27명이 Network 추천자(선출 3명, 비례 19명)

여성의원들의 공동작업으로 성취한 것:

호주제 폐지

성매매방지법

→평등문화 정착

270개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서 모니터한 결과

우수의원 57명 중 여성 12명 30.8%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고질적인 부패정치 청산하고 새 정치의 장을 여는 일

이권다툼 정치, 대권위한 정쟁을 그치고

민복, 민생을 위한 생활정치로 전환하지 못함

여성의 삶의 조건 개선 미흡

그 이유는:

소수집단의 참여율이 15%이상이어야 제 목소리 낼 수 있다.

아니면 동화 아니면 퇴출된다.

2008년 총선에서는 더 많은 여성의원을 국회로 보내야 하는 이유이다.

여성총선연대
40여개 단체
합동해서 추진

여성연대가 아니었다면 여성의원이 두 자리 수의 비율인 국회를 만들어낼 수 없었을 것이다. 여성연대의 중요성이 입증된 것이다.

힘이 발휘되

(2) 여성단체들의 연대

- 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② 한국여성단체연합(민중기반운동)
- ③ 여성환경연대(여성환경인연대)
- ④ 여성경제인 과학인 다양한 동질성 연대
- ⑤ 지역사회 여성단체 Network, 아파트 부녀회 등

다 연대를 통해서 삶의 조건을 개선해내고 있는 Network들이다. *사실관계로 설명*

다양한 의미로 (3) 한국여성재단 *여성경제인연대 24개 단체가 연합하여 설립한 재단*

1999년 12월 6일에 창립 지난해 12월 6일 창립 7주년을 기념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을 위한 재단이며

최초의 시민공익재단으로 출범하다(아름다운 재단, 환경재단으로 이어짐)

'딸들에게 희망을!' 기치로 여성단체 지원을 목표로 창립했고

128개 여성단체와 50여명의 개인여성지도자들의 Network로 추진되어
각계 남녀 최고지도자 58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구성을 성취해냈다.

대통령 영부인을 명예추진위원장으로 추대하고

기금 목표는 1000억원으로

IMF사태 와중에서 세상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지난 6년간 80억원 기금, 45억원 지원금 모금 및 배분한 것을 통해
많은 Partner 단체가 생겼다.

2007년도의 지원금 목표는 30억정도 예상하고 있다.

여성재단의 모금성과가 저조한 이유

기부문화에도 성차별업존(후발주자에게 뒤지고 있다)하고 있어서이다.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 기부시장에서도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기부풍토는 불우이웃돕기에 울인되어

장학금, 의료사업 등에 몰리고 있다.

공익활동에는 인색한 것이 현실이다. *여성경제인연대(총재는 더러움 인식하기)*

향후 활동방향은 여성단체들의 조직적이며 치밀한 Network를 통해서 구걸이 아닌 인
구의 반인 여성의 권리로 제 몫을 찾는 노력을 할 것이다.

모금방법은 수입의 1%, 매출의 1%, 유산 1%

특정명의의 기금, 특정지역 기금, 100인 기부 릴레이

지정기탁 등으로

배분은 정기신청사업, 특정기탁사업, 수시지원사업 등

혼자서는 불가능한 과제를 Network를 통해서 이루어내고 있다.

여성에게도 의무해야 하는 것은 인식 확산으로 기여.

V 맺는 말: 후배여성 한 사람

수원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지역의 여성들의 지도력을 양성하며 여성지도자들의 Network를 구축해내고 있는 아주대 여성 Leadership Center의 발전을 기원하고 이미 구축된 여성 Leader Network를 통해서 지방자체단체들의 여성정책의 성인지성을 견인하며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서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그 이끔이들이 되었으면 한다.

124472 8026400원 재한외환

아주대 여성 Leadership Center 동문회 특강

2007-1-17 6:20~7:00PM

수원 호텔캐슬 6층 다이아몬드룸

Center 동문 400여명

정치에 관심있는 여성들, 직장여성들, 일반여성들, 지방의원들

I 들어가는 말:

아주대의 여성 Leadership Center가 2003년에 창설되어 경기여성전문인력 DB구축을 비롯하여 여성정책포럼창립, 지방자치여성후보양성(2006년 지방선거 18명 출마 5명 당선), 지역사회여성 Leader 양성(여성단체장, 여성 CEO)등 다양한 Program으로 400여명의 각 부문의 여성 Leader들의 Network를 만들어 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축하할 일이 아니다.

Center의 설립이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여겨지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갈구하고 있는 새 패러다임, 사람이 중심이 되는 희망공동체 창조에서는 여성과 지역사회의 역할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역사발전의 중심에서 비껴난 주변존재로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여성과 지방이 왜 각광을 받고 있는가?

미래사회는 지역에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변혁이 일어나야 하며

현장실정에 능통한 지역과 여성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영순위자원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시민사회운동에서도 지방화시대의 내 고장 만들기에 시선을 돌리면서 생활자치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생활의 문제점에서 시작되는 풀뿌리운동을 중시하며 각 지역에 시민센터와 지역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정부들도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바라고 있는 행복지수를 높이는 정책을 감수성이 높은 여성들을 통해서 성취해 내기 위해 여성정책에 관심을 집중할 뿐만 아니라 여성고위공직임명도 당연시하며 모든 정책의 성별영향평가가 일상화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바람직한 변화이다. 센터의 과정을 거치신 준비된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활동한다면 이 지역사회발전은 명약관화하다.

영순위자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주문은

<여성 Network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① 여성 Leader로서 바람직한 삶

② 여성연대의 중요성

③ 여성재단에 대한 간단한 소개 등이다.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바란다면 아주대의 Leadership Center가 나에게 이 기회를 줄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50여 년간의 성평등을 위한 여성운동,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위한 환경운동, 민주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운동, 삶의 조건을 마련하는 정치활동 등 경제활동을 제외한 다양한 활동을 했다는데서 그 경험을 나누라는 뜻으로 판단했다.

참가자들과 둘러앉아서 느긋하게 질문과 대화 형식으로 하면 효과적일 수도 있는 내용이 될 것 같다.

II 오늘의 화두들: *유미애기 화두들대로 이야기들 시작할게 좋네*

(1) 2007년 벽두의 화두는 희망이다.

희망은 내일을 있게 하는 힘이라는 데서 사람들이 갈망한다.

삶의 조건을 만드는 정치권이 정쟁에만 급급해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불안이 극에 달해 있어서이다.

양극화 해소의 희망

일자리가 생길 거라는 희망

내 집 마련이 될 거라는 희망

교육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희망

북한이 핵을 포기할 거라는 희망

노후가 보장될 거라는 희망

이러한 서민들의 희망사항들은 우리나라의 절대다수인 빈곤여성들에게는 보다 절박한 사안들이다.

2006년도 여성계의 화두였던 <빈곤의 여성화>에서 살펴본 빈곤여성들이 겪어야 하는 주택문제, 자녀교육문제, 의료문제들은 남성들에 비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부하가 심각하다.

호주제 폐지 이후 여성문제의 우선과제는 경제적 평등이다.

경제적 성별불균형을 그대로 둔 채 여성의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여성의 경쟁력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새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는 데서 근래에 와서 경제적 성평등 인식이 생기게 된 것은 희망적이다. 하지만 여성들이 절대다수인 비정규직, 저임금 문제 등의 해결은 그 갈 길이 멀다.

정부의 예산집행을 비롯한 모든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증거이다. *세고하고 와라*

2007년도에는 우리나라의 최고 정책결정자를 선택하는 대통령선거가 있다.

취미와 지망고

좋은 기회이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정치계절마다에서 경험하고 있는 권력싸움에 과묵히 생활정치, 민생정치가 실종되는 상황이 거듭되지 않도록 여성들이 나서서 감시해야 할 것이다.

(2) 21세기는 여성의 세기이다-전 세계에 여풍이 몰아치고 있다.

오늘의 세계가 여성발전을 국가의 발전척도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전 세계가 총체적인 위기국면에서 문제해결의 대안으로서 여성들이 전면에서 나서게 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들이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고들 한다.

한 가정에서도 위기에 처하면 주부들이 나서게 되어있다.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위기에 처한 정당들이 저마다 위기극복의 방편으로 여성을 당대표, 선거대책위원장 혹은 대변인으로 내세워 선거를 치를 것을 기억한다. 그것은 유권자들이 여성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 다르고 그리고 지금까지 써보지 않은 잠재력에 기대를 걸기 때문일 것이다. 덕분에 여성들이 정치력을 검증받는 기회가 되어서 여성총리도 임명되고 차기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로 여성들이 거명되고 있다.

왜 여성들인가?

20세기가 White Collar 또는 Blue Collar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상상력과 창의성 발휘가 높은 부가가치가 되는 Gold Collar 그리고 부드럽고 섬세한 감성이 요구되는 Pink Collar 세기이다.

110대 미국의회가 개원하던 지난 1월 4일 미국 역사상 첫 여성하원의장으로 선출된 66세의 낸시 펠로시는 새로운 시대 개막을 선언하는 20분간의 연설에서 '200년 이상 기다린 이 역사적인 순간은 우리 딸들과 손녀들을 위해 대리석 천장(유리천장이 아닌)을 깨부수고 딸들과 손녀들에게 이제는 하늘이 한개인 세상을 열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단상에 자신의 손자들과 의원들의 자녀들을 불러올려서 '우리 자식들, 미국의 어린이들을 위해'라며 의사봉을 두드렸다는 것이다.

힘의 논리, 강자의 논리에 젖어있는 남성 정치인들에게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그림이다. ^{독일당여풍} 선서 직후 그는 <의원윤리법>개정안을 부패정당으로 낙인찍힌 공화당 의원들도 함세하게 해서 430:1로 가결시켜 로비스트들의 선물이나 식사제공도 금지하는데 성공했다. 여성이기에 해낼 수 있었던 쾌거였다. 여성의장 진출이 대의회 로비활동의 양상을 바꾸기도 하고 있다.(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전 세계에 여풍이 몰아치고 있다고 한다.

정치계에는	칠레의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프랑스의 세골렌 루아얄 사회당 대통령 후보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등

경제계에는 인드라 누이가 캡시의 첫 여성 CEO로 맹활약하고 있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주목되는 대목은 프랑스의 루아얄 대통령후보는 ^{이변이거기} 강력한 좌우파, 상대결의 상대 당 남성 후보에 맞서 여성 특유의 부드러움과 여러 자녀를 가진 따뜻한 모성성을 내세우고 있는 점이다. 과거에는 내세워서 손해 보는 덕목이었다.

우리나라의 여성도 못지않다. 여성총리, 여성대통령 후보 등 비록 2006년도 우리나라의 여성권한척도가 75개국 중 53위임에도 여성대법관, 장관, 장관급직,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여성 지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보편이 아닌 보편의 권으로 판 길로 가는 것이 여성에게도 유리한 것이리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야심찬 여성들이 다수 배출되고 새로운 부문에 도전장을 던지는 여성들이 늘어나야 한다.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이 실력으로 당당하게 절반의 몫을 차지하는 날을 앞당기는데 여러 분은 기여해야 한다.

(3) 인생을 이모작하라. ^{구체적}

통계청에서는 지난 40년간 수명이 20년 늘어났으며 앞으로는 더 빠른 추세로 수명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2005 남 75.1세 여 81.9세)

미국의 어떤 조사에 따르면 첨단기술의 발달로 180세 수명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

생물학자인 최재천 이대석교수는 2005년 펴낸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는 책에서 100세 인생을 전, 후반으로 나누어서 전반부는 자녀양육 등 먹고사는 문제의 의무의 삶을 산다면 후반부의 삶은 자기의 보람을 찾는 생으로 살라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권유하는 것은 50세 이후의 30~50년간의 후기 삶을 위해 전반부의 삶에서 적어도 10년간은 투자해서 공부하고 노는 법도 배우고 함께 늙어갈 친구관계를 확실히 다져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것을 최교수는 <행복 Network>라고 하고 있다.

세계적 경영학 석학인 피터 드러커교수는 젊었을 때부터 시민사회운동에 참가하는 것이 행복한 노년을 마련하는 첩경이라고 하기도 한다.

최교수와 또 다른 50대 교수가 지적인 아름다운 '인생 2막'을 여는 10가지 열쇠를 소개하면:

- ① 유서를 미리 써보라
- ② 다시 공부를 시작하라
- ③ 노는 법을 배워라
- ④ 행복네트워크를 구축하라
- ⑤ 가족과 1:1 만남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만들라
- ⑥ 누군가의 성공을 돕는 일을 시작하라
- ⑦ 고독과 친구가 되는 법을 미리 훈련하라
- ⑧ 생의 마지막까지 지속할 운동기술을 익히라

⑨ 병원비를 감당할 보험을 쟁겨라

⑩ 행복의 원천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라고 하고 있다.

이들 모두는 50세가 되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행복의 원천을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라는 것이다.

수명이 마냥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닌 것 같다.

오늘날 제앙이라고까지 일컬어지고 있는 고령화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 사회에서의 문제의 심각성은 세계 최저(1.08)를 기록하고 있는 저출산문제와 맞물리고 있어서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① 고령화사회전입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하는 것(프랑스 115년 한국 18년)

② 2050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③ 2030년 노인인구 지금의 3배

사회보장비 부담: 05년 8:1, 20년 4:1, 50년 1:1

④ 2006년 출생아수 1908년의 1/2

⑤ 2020년부터 인구감소 시작

정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보육비 증액, 국공립보육원 증설 등

보건복지부 출산장려정책

기업에서는 가족친화적 기업운영운동(가정과 직장생활의 조화)

→ New 패러다임 운동 전개

III 여성 Leader로서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

Leader란 이끄는 사람이란 뜻으로 사람들은 누구나가 이끌림을 받기도 하고 이끌기도 한다. 우리 모두는 성격을 달리할 뿐 Leader들이다.

어머니나 전업주부들도, 모든 직장인들도 자녀와 가족의 꿈과 행복을 경영하거나 직장인으로서 자기관리를 해야 하는 CEO들이다.

단 그것에 걸맞은 훈련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는 한 가정의 경영을 책임진 전업주부를 비롯해서, 직장인, 경영인, 공직자 또는 NPO의 활동가로서 각기 자신이 Leader임을 인정해야 한다.

여러분은 지역사회발전을 주도할 여성인재들이다.

세계가 21세기의 Global Leader로 주목하고 있는 <여성 Leader>란 남성 Leader와 상반된 개념이 아니며 여성만이 갖고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남성이 못하는 일은 여성도 못하고 여성이 못하는 일은 남성도 못한다. 함께 해야 된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남녀차별철폐가 아니라 남녀공동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보해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여성을 대안적 Leader로 수용하면서

세계가 눈에 보이는 이익창출에 골몰하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찾아내고 이것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여성 Leader가 가지고 있는 강점으로 인정했다.

학자들은 이러한 여성들이 지역사회, 국가 및 Global 사회의 생존을 좌우하는 Leader들 이라고 한다.

여성Leader는 섬김, 평화, 나눔으로 설명되며

개인이 아닌 전체

경쟁이 아닌 조화

이용이 아닌 도움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것 등을 덕목으로 하고 있다.

Leader는 Management와 Leadership을 겸비해야 한다고 한다.

Management란 기업이 중시하는 경영능력으로서 꿈을 꾸는 지도자로서 꿈을 키우고, 꿈을 현실화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같은 꿈을 꾸게 하면서 또 다른 꿈에 목말라하는 것이라고 했다.(21세기 Management라는 책에서)

Leadership이란

① 문제해결의 능력 ② 자기관리능력(시간관리, 평생학습, 자기 삶 등) ③ 상황을 변혁시키는 능력 ④ 국제적 안목 ⑤ 성인지적 사고능력 등이라고 한다. 나는 이러한 Leadership의 덕목을 50여 년간 시민운동을 하도록 계기를 만들어준 YWCA 지도자들에게서 배웠고 그리고 배운 것은 활용하려고 노력해오고 있다.

50년대에 대학에 입학하면서 YWCA에서 만난 여성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지금의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나의 멘토들이었다. 지금은 후진들에게서 매일매일 배우고 있다.

나는 이들의 사적인 생활영역에서도 많은 것을 배웠다.

정돈된 가정경영, 박에스터선생의 한 치의 틀림도 없는 일처리,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나누어먹는 것을 포함한 나눔의 생활, 사회변화를 위한 열정, 개척정신 등 제가 평생 닦으려고 애쓰는 생활양식이다.

2002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갑자기 불어 닥친 사오정 오륙도의 세대교체 바람으로 평생 할 수 있다고 믿어왔던 Volunteer 일도 나이를 의식하게 되면서 모든 것을 집기로 하고 정리 중에 있을 때 한 권의 책이 지금까지 현역으로 일을 지속하게 하는데 주효했다. 책의 주인공이 사는 방식이 바람직한 여성 지도자의 바람직한 삶의 모델이라고 여겨져 소개한다.

2002년 5월 일본방문 시 한 책방에서

<70세를 넘어서 꽃피운 인생이 있다>라는 책 띠 문구에 끌려서 집어든 책 <오노 사다

코의 사는 법>이 마침 70세였던 나에게 새로운 다짐을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이 사람은 80세가 넘어서도 현역으로 국제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본의
마더 테레사로 알려진, 우리나라의 한비아의 미래상을 연상케 하는 일본의 국제적 여성
인재이다.

그는 국제적인 많은 상을 받았다.

그는 1991년 63세로 제8대 UN난민구호기구 관무관으로 임명되었다.

그가 <난민구호의 어머니>로 자리매김된 것은 그의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일의 방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그는 현장을 중시하는 일꾼으로서 책상을 지키고 있었던 전임자와는 달리 150cm에 불과
한 작은 체구로 15kg이나 되는 방탄조끼를 입은 채 지구를 수십 번 돌 만큼 난민이 있
는 위험지구를 헤집고 다니면서 문제해결에 임했다. 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관무관이
라는 권위가 아니라 자신의 인류애에 입각한 신념과 이상을 현장에서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였다.

2002년 동경에서 개최된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한 지원금 모금 국제회의에서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45억불이라는 거액을 모금하는 능력을 과시했
는데 그것은 그가 얼마나 인맥관리를 잘하고 있으며 국제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
리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보여준 것이다.

그의 Leadership은 UN사무총장 후보로, 또 일본의 수상후보로 거론될 만큼 출중했다.
2001년 75세시 국가의 최고훈장 수여제의를 거부하였는데 훈장이란 일을 마친 후에 받
는 것인데 아직 할 일이 남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 사람은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교 교수로, 유엔기구의 일본대표로서 공
적생활을 시작한 것이 자녀 양육이 다 끝나치고 60세가 다 되어서였다고 한다. '결혼이
란 여성의 긴 인생의 1부에 불과하다'고 하면서도 그는 공직에 있는 남편 뒷바라지를 포
함한 가정생활을 충실히 하였다.

그가 늦깎이 사회생활을 훌륭히 해낸 삶에 대한 자세는 비판하지도 않고, 조조해하지도
않으면서 서둘지도 않고 착실하게 사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러한 그의 Leadership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학창시절
부터 착실하게 준비한 결과이다.

예를 들어서 그의 영어실력은 제2차 대전 중 정부가 영어교육을 금지하고 있을 때임에
도 꾸준히 공부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달고 싶은 바람직한 삶은 오노 사다코에게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 해 이화여대 창립 120년 기념행사에서 만난 104세의 동문(유관순 열사와 한 살 차이, 독립운동 같이 함)의 건재함에서, 또 2006년 가을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Mrs. 드러커의 경우에서도 배워야 한다. 94세인 노구에도 불구하고 단신으로 국제여행을 하며 아직도 전문가로서의 연설을 젊은이처럼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후회하면서 후배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자기관리를 게을리 하지 말라는 것이다. 나는 나의 관리를 잘 못한 사람이다.
 학교교육 제대로 못한 것: 만주→평양→남한
 대학생생활 6.25동란 중 교외활동에 열중
 노년생활 준비 못한 것: 일반 한다고 노는 수단 못배우고
 친구의 Network도 소홀
 다행이었던 것: 일찍부터 시민사회운동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노년에 공부하는 기회 가진 것
 (93년 61세에 영국 케임브리지에 유학)
 지금도 Study Group에 끼어서 공부하고 있는 것
 아직 못하고 있는 것: 노는 법 배우는 것
 자기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어떤 핑계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여러분이야말로 후기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Never Too Late이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IV 여성연대의 중요성:

핀란드 대통령인 타르야 할로넨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Leader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혼자만의 힘으로 Leader가 될 수 없다>고 한 말이
 기억난다. 여성들 간의 Network도 중요하지만 남녀다수가 Partner가 되는 Network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노 사다코도 인맥을 중요시한 것은 혼자서 빛나는 세상은 지났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세상이다.
 약자들은 더더욱 연대의 힘을 필요로 한다.
 UN을 비롯한 국제회의에서 여성, 청년, 소소민족 등이 자기들만의 사전회의를 통해서
 집단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여성연대의 중요성을 대표적인 실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2004년 제17대 국회에 여성의원 100인 보내기 연대:

① 여성총선연대(302개단체) 정당법 개정 등 제도가 개혁 정치풍토개혁
비례직 50% 선출직 30% 공천

선거공영제

지구당 폐지

중, 대 선거구제

② 맑은정치 여성Network(80여명의 여성개인지도자)

102명 여성후보 발굴, 심사후 명부작성, 각 정당에 추천(사람이 없다 공개 배제)

공천독려, 선거운동, 지지세력 구축, 유권자운동

③ 맑은정치여성기금모금본부(여성재단) 정치자금모금

당선목표: 102명 추천 100명 당선

(정당법 개정전제로 비례직 46명 중 50% 23명

선출직 226명 중 30% 등 =91명)

성과: 각 정당의 여성후보공천에 Network 추천 거쳤는가가 공천조건 1위로

제16대 272명 중 16명→5.9%

제17대 39명(선출 10명, 비례 29명)→13.4%(UN 30%, 아시아 14.5%)

여성정치참여 101位→62位로

27명이 Network 추천자(선출 3명, 비례 19명)

여성의원들의 공동작업으로 성취한 것:

호주제 폐지

성매매방지법

→평등문화 정착

270개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서 모니터한 결과

우수의원 57명 中 여성 12명 30.8%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고질적인 부패정치 청산하고 새 정치의 장을 여는 일

이권다툼 정치, 대권위한 정쟁을 그치고

민복, 민생을 위한 생활정치로 전환하지 못함

여성의 삶의 조건 개선 미흡

그 이유는:

소수집단의 참여율이 15%이상이어야 제 목소리 낼 수 있다.

아니면 동화 아니면 퇴출된다.

2008년 총선에서는 더 많은 여성위원을 국회로 보내야 하는 이유이다.

여성연대가 아니었다면 여성위원이 두 자리 수의 비율인 국회를

만들어낼 수 없었을 것이다. 여성연대의 중요성이 입증된 것이다.

(2) 여성단체들의 연대

- 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② 한국여성단체연합(민중기반운동)
- ③ 여성환경연대(여성환경인연대)
- ④ 여성경제인 과학인 다양한 동질성 연대
- ⑤ 지역사회 여성단체 Network, 아파트 부녀회 등

다 연대를 통해서 삶의 조건을 개선해내고 있는 Network들이다.

(3) 한국여성재단

1999년 12월 6일에 창립 지난해 12월 6일 창립 7주년을 기념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을 위한 재단이며

최초의 시민공익재단으로 출범하다(아름다운 재단, 환경재단으로 이어짐)

‘딸들에게 희망을!’기치로 여성단체 지원을 목표로 창립했고

128개 여성단체와 50여명의 개인여성지도자들의 Network로 추진되어

각계 남녀 최고지도자 58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구성을 성취해냈다.

대통령 영부인을 명예추진위원장으로 추대하고

기금 목표는 1000억원으로

IMF사태 와중에서 세상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지난 6년간 80억원 기금, 45억원 지원금 모금 및 배분한 것을 통해
많은 Partner 단체가 생겼다.

2007년도의 지원금 목표는 30억정도 예상하고 있다.

여성재단의 모금성과가 저조한 이유

기부문화에도 성차별염존(후발주자에게 뒤지고 있다)하고 있어서이다.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 기부시장에서도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기부풍토는 불우이웃돕기에 올인되어

장학금, 의료사업 등에 몰리고 있다.

공익활동에는 인색한 것이 현실이다.

향후 활동방향은 여성단체들의 조직적이며 치밀한 Network를 통해서 구걸이 아닌 인구
의 반인 여성의 권리로 제 몫을 찾는 노력을 할 것이다.

모금방법은 수입의 1%, 매출의 1%, 유산 1%

특정명의의 기금, 특정지역 기금, 100인 기부 릴레이

지정기탁 등으로

배분은 정기신청사업, 특정기탁사업, 수시지원사업 등

혼자서는 불가능한 과제를 Network를 통해서 이루어내고 있다.

V 맺는 말:

수원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지역의 여성들의 지도력을 양성하며 여성지도자들의 Network를 구축해내고 있는 아주대 여성 Leadership Center의 발전을 기원하고 이미 구축된 여성 Leader Network를 통해서 지방자채단체들의 여성정책의 성인지성을 건인하며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서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그 이끔이들이 되었으면 한다.



아주대학교

수신 : 이사장님
(경유) : 총무팀장
제목 : 강의요청 건

여성리더십센터에서는 아주대학교 "여성리더십센터 동문인의 밤" 행사 시 기조 강연으로 박영숙 여성재단 이사장님의 강의를 부탁드립니다.

- ▶ 일시: 2007년 1월 17일(수요일) 오후 6시 10분 - 7시(50분간)
- ▶ 장소: 수원시 호텔 캐슬 6층 다이아몬드 룸
- ▶ 강의내용: 여성 네트워크의 힘(여성 연대의 중요성). 끝.

여성리더십센터장

여성리더십센터

송민서

여성리더십센터장

전송 01/12/21

협조

시행 여성리더 38호(2006.12.08)

접수

우 443-749

수원시 영동구 원정동 산5번지

/ <http://www.ajou.ac.kr>

전화 031-219-1743 전송 031-219-1739 / min81@ajou.ac.kr

/

여성리더십센터 연혁

2003	1. 28.	여성리더십센터 설립
	5. 27.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설립, 개소식 및 기념 심포지엄 개최
	8. 28.	학진협동과제 중간발표 세미나 "공공부문 여성 리더십의 효율성과 결정요인"
2004	3.	경기여성 전문인력 DB구축
	5. 24.	경기여성정책포럼 창립 및 창립기념포럼
	5. 24. - 현재	경기여성정책포럼 운영 (2005.7.까지 총 9회 포럼 개최)
	6. 2. - 10. 13.	2006 지방자치 여성후보 양성과정 (1기)
	8. 30. - 8. 31.	용인 여성단체장 워크숍 "셀프리더십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발전의 비전 만들기"
	9. 3. - 11. 26.	수원 지역사회 여성리더 양성 프로그램
2005	3. 14. - 6. 27.	수원 여성 CEO 아카데미
	3. 18. - 6. 25.	2005 수원여성지도자대학 "미래를 향한 여성리더 양성 프로그램"
	4. 13. - 7. 13.	2006 지방자치 여성후보 양성과정 (2기)
	8. 31. - 11. 2.	2006 지방자치 여성후보 양성과정: 실전과정
	9. 8. - 9. 10.	여성리더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과정
	9. 28. - 11. 30.	제1기 아주대 여성리더십 아카데미
2006	3. 31. - 7. 7.	2006 수원여성지도자대학 "미래를 향한 여성리더 양성 프로그램"
	6. - 11	수원시 여성발전기금 평가 사업 (진행 중) ✓
	7. 19	수원시 가족과 여성의 정책방향 심포지움
	9. 6. - 11. 29	제2기 아주대 여성리더십 아카데미
	9. 6. - 12. 13.	지방자치 여성후보 양성과정 (3기)
	11. 1- 11. 29	커뮤니케이션 향상 프로그램
2007	1. 17	여성 리더 동문인의 밤 개최(진행 예정)

가족돌봄지원 및 취업연계를 통한

‘저소득 여성가장, 희망 점프’

▷ 제안 : 한국여성단체연합

▷ 협력단체 : 한부모여성네트워크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빈곤추방여성노동권확보 희망운동본부

1. 사업배경

(1) 여성가장의 빈곤화 현황

① 여성가장의 증가현황

이혼과 별거 등 결혼의 해체가 증가하면서 여성 가장의 증가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음. 통계에 따르면 전체가구 중 여성가장의 비율은 1980년도에 전체 가구의 14.7%에서 2004년도에는 19.3%로 증가하여 2,995천명에 이룸(전체가구주 15,539천명)

② 여성가장의 빈곤현황

- 여성가장의 절대다수는 노동시장에서의 성불평등과 정보접근의 어려움, 여성가장에 대한 사회적 편견, 사회적 지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음.
- 여성가장 가구의 빈곤 위험은 남성가구주 가구의 3배 정도에 달하고 있으며(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 월평균소득의 1/3이하의 보수를 받는 근로빈민층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4에 이르고 여성가장 가구는 3/5을 차지하고 있음(1998,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분석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가구에서도 여성가장의 가구비율이(14.1%) 남성수급가구의 약 7배에 달함(2000년 통계)

③ 여성가장 탈빈곤을 위한 사회보장정책의 미흡성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모부자복지법 등의 지원방안이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현물과 현금 지급만 제공할 뿐, 여성가장에게 필요한 사회 심리적 서비스나 가족 특성에 따른 서비스는 결여되어 있음.

- 모부자복지법은 주거지원과 아동양육비 지원에 치중되어 있을 뿐 생계비나 의료비 지원은 매우 부족하며, 이것도 국민기초생활대상자에게 한정되어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며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 사이를 반복하는 저소득 여성가장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

(2) 여성가장 빈곤화의 주요 원인

① 저임금,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

- 여성가장의 빈곤화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열악한 지위와 직접 관련됨. 현재 여성노동자의 70% 이상이 비정규직이며, 여성 임금이 남성 임금의 62.9%(2005, 통계연보)인 상황에서 여성의 이혼과 별거는 곧 빈곤화로 직결 될 수밖에 없음.
-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가 2005년 5개지역 1,006명의 근로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대상 여성 가정들은 주로 가사 및 간병(33.4%), 서비스직(11.4%), 청소용역부(10.4%) 등 미숙련 저임금 직종에 주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가장의 월평균 근로 소득은 주로 50-64만원(31.3%), 64-82만원(33.2%)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82만원이하의 저소득 임금군에 집중되어 있었음.

② 일·가정 양립의 곤란

- 위 조사에 따르면, 특히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 환자돌봄 등 돌봄 노동의 부담으로 인해 여성가장들은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에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위의 등 조사에 따르면, 여성가장들의 71.8%가 하루 2시간 이상의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52.4%가 아픈 가족원을 직접 돌본다고 응답하고 있음. 자녀양육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65.4%가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고 저녁시간에 주로 혼자 자녀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과도한 돌봄노동의 부담은 여성가장들이 취업훈련 프로그램이 있어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③ 직업훈련 등 고용지원 서비스 미흡

- 현재, 여성가장 대상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주로 미숙련 직종에 집중되어 있고 프로그램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며, 훈련기간 동안 월 10~20만원 정도의 생계비 지원이 전부여서 직업훈련 참여율이 매우 낮은 상태임. 등 조사에 따르면, 여성가장들은 여전히 체계적인 취업연계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구직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가장이 일자리를 얻게 되는 구직경로는 직업훈련원, 유료직업 소개소, 고용안정센터 등 공식적인 방법보다는 가족, 친구 등 소개(41.8%)와 같은 비공식 통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사업필요성

(1) 사회통합을 위한 저소득 여성가장 지원 필요성

- 사회통합을 통한 사회 안정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사회발전을 위한 노력을 결집시켜 경제성장은 물론 국민들의 삶의 질 확대를 위해서 절실히 요구되는 사회적 과제임.
- 현재 빈곤의 절대다수가 여성이 되어가는 '빈곤의 여성화' 현상은 여성의 빠른 빈곤화를 차단하지 못한다면 사회양극화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줌. 여성들의 빠른 빈곤화는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계층 간 불평등 뿐 아니라 성별 불평등을 증폭시켜 사회적 갈등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계층·성별간 사회통합을 크게 저해할 것임.
- 또한 빈곤여성가장 가구의 아동의 경우, 보다 나은 교육 및 기타 인적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제한받게 되고 이로 인해 취업기회의 제한은 물론, 빈곤을 대물림 할 가능성이 높음. 이는 사회양극화를 세대 간에 전이시켜 계층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임.
- 따라서 계층·성별간 사회통합을 통해 사회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빈곤층으로 가장 빨리 전락하고 있는 저소득 여성가장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2) 여성가장의 탈 빈곤을 위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필요

- 지금까지 방송사를 중심으로 한 사회 부조 사업은 주로 일회적 지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음. 그러나 최근 빈곤층의 상당수는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근로 빈곤층으로, 직업훈련 및 취업기회의 부족, 미숙련 비정규직 중심의 취업으로 인해 빈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

- 따라서 일회적인 지원보다는, 저소득 여성가장들이 보다 나은 직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양질의 직업훈련을 받도록 지원하고, 취업연계 프로그램과 취업 후 상담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소득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구조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 이러한 구조적인 지원을 통해 저소득 여성가장들에게 스스로 빈곤에서 탈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사업비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일회적 지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임.

(3) 여성가장 인적개발과 취업연계를 위한 토달 서비스 지원 필요

① 가족돌봄노동 지원 서비스 필요성

- 가족돌봄노동은 여성가장들의 직업훈련 및 구직 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여성가장들이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하고 활발히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과도한 돌봄 노동과 일의 병행으로 인해, 여성가장들은 건강상의 문제를 심각히 겪고 있었으며 이는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막아 빈곤을 더욱 구조화하고 있음(위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56.4%가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
- 동 조사에 따르면, 가족 내 장애인 만성질환자에 대한 간병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20만원 미만 149명(55.8%), 20-30만원 미만 52명(19.5%), 60만원 이상도 26명(9.7%)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자의 28.5%가 가족원 간병으로 직장을 이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간병 비용과 간병 활동의 부담이 여성 가장들의 빈곤화를 가속시키거나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여성가장들에게 자녀양육, 가사노동, 환자간병 등 돌봄 노동 서비스를 지원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직업훈련과 구직활동, 직장생활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여성가장들의 탈빈곤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것임.

② 체계화된 취업연계 토달 지원 서비스 필요성

- 여성가장들의 실질적인 취업연계를 위해서는 1 : 1 맞춤 상담을 통해 구직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특성화된 직업훈련 프로그램 정보 제공, 훈련 및 구직 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줄 수 있는 상담제공, 구직자의 특성에 맞는 취업정보와 취업 후 어려움에 대한 상담 등 각 과정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전체적이고 맞춤 서비스가 필요함.
- 특히 여성가장들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직업훈련 및 구직과정에서 차별을 경험

할 뿐 아니라, 스스로 자존감 상실, 우울,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친밀한 1 : 1 상담활동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구직과 취업 후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줄 수 있는 토달 서비스를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함.

(4) 저소득 여성가장의 탈빈곤에 관한 사회적 관심 제고 필요성

- 저소득 여성가장의 탈빈곤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관심뿐 아니라 다양한 부가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나, 정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민사회에서 이들의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자원이 지원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저소득 여성가장들의 빈곤상태와 빈곤의 원인, 빈곤 극복을 위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광범위하게 홍보되어야 함.
- 이를 위해 미디어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저소득 여성가장들의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감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ARS 모금을 통해 국민 참여모금을 이끌어내고 사회각계각층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금 사업이 필요함.

3. 사업내용

(1) 저소득 여성가장 가족돌봄노동 지원서비스 제공

: 가족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서비스 쿠폰 제공

- 1) 내용 :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저소득 여성 가장에게 육아, 가사노동, 간병 서비스등의 돌봄 노동을 직업훈련 기간 3개월 동안 제공하여 여성가장들이 안정적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2) 제공 서비스 : 육아, 가사노동, 간병 서비스를 직업훈련 기간 3개월 동안 1일 4시간, 주5일 사용 쿠폰 지급
- 3) 서비스 신청 자격 및 인원
: 직업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고자 하는 저소득 여성 가장, 16개 광역시 기준 총 3,000명
- 4) 서비스 제공처 : 전국가정관리사협회/자활후견기관/YWCA 등 지역에서 사회적 일

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처

5) 서비스 지불 금액

- 보육, 가사, 간병, 노인돌봄 서비스 : 시간당 5,000원
- 1인당 서비스 제공금액 : 1일 4시간×20일(주5일)×5,000원×3개월 = 1인당 1,200,000원

6) 소요 예산 : 3,660,000천원

- 서비스 지원 예산 : 1인당 1,200,000원×3,000명 = 3,600,000천원
- 서비스 연계 업무 추진비
: 500,000원× 30개 서비스 전달체계×4개월(1개월 준비기간 포함) =60,000천원

7) 서비스 제공 방법

- 16개 광역시·도의 총 30개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 저소득 여성가장들에게 접수 받은 후, 해당자 선정
- 가정관리사협회/자활후견기관/지역 YWCA 등과 서비스 연계, 서비스 질 관리, 서비스 이용 상담 등 진행

(2) 저소득 여성가장 취업연계 서비스 시범사업 진행

1) 내용

- 저소득 여성가장들이 직업 훈련 후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1:1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되, 여성가장으로서 겪는 심리 및 관계성 훈련 교육부터 직업훈련 및 일자리 정보, 취업 후 상담까지 여성가장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 제공
- 10개 지역 시범사업을 통해 여성가장 취업연계 서비스 프로그램과 모델을 개발하여, 향후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2) 제공 서비스

- 취업을 원하는 저소득 여성가장에게 직업훈련 프로그램 정보 제공
- 지역 기업과 저소득 여성가장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마련
- 저소득 여성가장에게 1:1 맞춤 일자리 정보 제공
- 직업훈련과 구직 시 어려움에 대한 1:1 상담활동
- 심리 및 관계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제공
- 취업 후 어려움에 대한 상담 활동 진행

3) 예산 : 252,000천원

4. 총 소요예산 : 4,000,000천원

- (1) 저소득 여성가장 돌봄노동 지원서비스 제공 : 3,660,000천원
- (2) 저소득 여성가장 취업연계 서비스 시범사업 : 88,000천원
- (3) '여성가장, 희망 점프' 문화 캠페인 : 252,000천원

5. 사업효과

- 저소득 여성 가장들에게 직업훈련 기간 동안 보육, 가사노동, 환자돌봄, 노인부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직업훈련을 받게 하여 더 나은 구직기회를 제공한다.
- 저소득 여성가장들에게 직업훈련부터 취업연계, 취업 후 관리 상담, 심리상담 등의 전문적인 Non-stop total 취업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가장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통해 빈곤을 극복하도록 할 수 있다.
- 저소득 여성가장을 위한 Non-stop total 취업연계 서비스를 전국 10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여 저소득 여성가장 취업연계 서비스 프로그램과 모델을 개발하고 정부에 제시함으로써, 저소득 여성가장들의 탈빈곤을 위한 실질적 정부 정책이 마련되도록 할 수 있다.
- 여성 가장들의 빈곤 문제의 심각성과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사회 여론화하여, 저소득 여성가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사회 여론화하여 저소득여성가장에 대한 사회적 지원망을 확대시킨다.